

# 1920년대 전반기 충북 영동지역의 청년운동

장승순\*

- 
- I. 머리말
  - II. 사회적·경제적 배경
  - III. 1920년대 이전의 운동
  - IV. 초기 청년단체의 활동(1920.8~1923.2)
  - V. 청년단체의 성격 변화와 활동(1923.3~1927.6)
  - VI. 맺음말
- 

## I. 머리말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은 우리민족의 근대혁명운동사에서 거대한 전환점을 이루는 전민족적 반일투쟁이었다. 일제의 조선 강제 점령 후 실시된 폭압과 약탈 정책에 반발하여 일어난 거족적인 항거로 이전까지의 모든 형태의 민족운동의 역량을 한곳으로 결집시킨 민족해방운동이었다.

3·1운동 이후 새로 부임한 총독은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상황에서 식민지배 체제를 이른바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하며 그동안 완전히 금지하였던 조선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자유를 허

---

\* 충북대 초빙객원교수

용하며 조선인들에게 제한적이거나 정치활동의 기회를 주었다.

또한 1910년대 이후 중국이나 일본 등지로부터 붓물처럼 밀려오는 신 사상의 물결은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식민지 조선 민중들의 민족적·계급적 자각을 크게 고양시켰다. 이 자각은 조선의 민중들도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주동적인 자기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이제 민족운동이나 사회운동도 단순히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의 영역이 아니라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농민은 농민으로서의 계급적, 계층적 성격을 띠며 농민·노동·학생·청년·여성·형평 등 다양한 부문운동을 전개하였다.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는 젊은 인텔리들에 의하여 행해졌고 또 그것은 각종의 단체운동을 매개로 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때의 청년들은 곧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자들이었다. 또한 청년은 사회계층적으로 모든 부문운동에 속하는 존재로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해방을 이루고 근대민족국가를 만드는데 앞장 설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일상적 이익을 옹호하는 한편 봉건적 질곡에 신음하는 청년층을 반봉건운동으로 결집시켜야 하는 그 발생기적 특수성 때문에 처음부터 일종의 청년 전위운동, 사상운동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다른 부문운동이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년운동이 전체운동을 선도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실천자들이었다.

이러한 청년운동의 중요성 때문에 청년운동은 학생·여성·형평 등의 부문 운동보다 일찍부터 주목을 받으며 연구가 진행되었다.<sup>1)</sup> 그 연구는 청

1) 선우기성, 『한국청년운동사』, 금문사, 1973 ;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5, 청계연구소, 1986 ; 김성식, 「일제하 한국학생운동사」, 『일제하 민족운동사』,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71 ; 정세현, 『항일학생 민족운동사연구』, 일지사, 1975 ; 조동걸, 「한국근대학생조직의 성격변화」, 『한국근대민족주의운동사연구』, 일조각, 1987 ; 안건호, 「조선청년연합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사연구』 88, 1995 ; 박철하, 「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 청년운동과 고려공산청년회」, 『역사와 현실』 9, 1993 ; 김성보, 「광주학생운동과 사회주의 청년·학생조직」, 『역사비평』 봄(계간호), 1989 ; 김동춘, 「1920년대 학생운동과 맑스주의」, 『역사비평』 가을(계간호), 1989 ; 박찬승, 「광주항일학생운동의 정치사상적 배경」, 『전남 사회운동사연구』, 한울, 1992 ; 조찬석, 「1920년대 충청지방의 청년운동」, 『인천교대논문집』 25, 1991 ; 조찬석, 「1920년대 경상남도지방의 청년운동」, 『인천교대논문집』 19, 1985 ; 김일수, 「1920년대 경북지역의 청년운동」, 『

년단체를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누고 그 활동을 신문자료에 의존해 정리하거나, 초기 청년운동을 초기 공산주의 운동의 형성과정 내지는 공산주의 운동으로 설명하려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청년운동은 지역에 기반을 둔 청년들에 의해 전개되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지역사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충북지역에 일제 강점기 대한 부분운동 연구는 적은 편이지만, 그러나 그 대부분의 연구도 교육운동과 학생운동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sup>2)</sup>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청년운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고 그나마 청년운동에 관해서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충북지역에서 전개된 농민운동을 밝히는 과정에서 언급될 정도였다. 강호출은 주로 영동 지역 농민운동을 농민조합의 설립과 적색농민조합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그 주체들이 청년운동을 추진했던 혁신청년이었다고 보고 있다.<sup>3)</sup> 이러한 입장은 지수걸과 김석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수걸은 1930년대의 사상성을 바탕으로 하는 농민조합을 혁명적 농민조합으로 명명하고 전국에 존재하는 혁명적 농민조합을 파악하면서 충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영동지역에서도 혁신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혁명적 농민조합이 결성되었다고 하고 하며 청년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sup>4)</sup> 김석근은 1930년대의 일제의 탄압으로 지하로 잠적한 농민조합을 적색농민조합으로 명명하며, 충북지역에서 그러한 전환을 이룬 곳으로 영동농민조합을 적색농민

---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1995 ; 허종, 「1920년대 충남지역의 청년운동」, 『역사와 담론』제55집, 2010 ; 김점숙, 「1930년대 전반기 전남 지방의 조공제건운동과 혁명적 대중운동」,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여강출판사, 1993.

- 2) 전순동, 「일제기 청주지방의 민족교육운동-청남학교를 중심으로」, 『중원문화논총』제2·3합집, 1999 ; 박결순, 「일제강점기 충북지역의 학생운동」, 『충북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국학자료원, 2012 ; 강호출, 「식민지시대 충북영동지역의 농민운동연구」, 『사총』제39집, 1911 ; 장승순, 「1920년대 충북지역 청년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중원문화연구』제23집, 2015 ; 주계운, 「1930년대 충북지역 관제청년단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0집, 2011.
- 3) 강호출, 「식민지시대 충북 영동지역의 농민운동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4)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3.

조합으로 분류하고 그 전환을 주도한 이들을 살펴보고 있다.<sup>5)</sup>

청년운동에 대한 단일 주제로는 장승순이 충북지역에 국한하여 1920년대 충북지역 사회운동을 청년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있고, 주계운이 1930년대 관제청년단체를 살펴본 바 있다.<sup>6)</sup>

충북지역 내에서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초까지 청년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곳은 청주, 괴산, 영동지역 정도였지만, 그중에서 영동지역은 지역 혁신청년들이<sup>7)</sup> 청년회를 조직했던 당시 유행하던 사회주의 사상을 적용하여 각종 사회운동이 지도하고 리드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도 설립하였고, 그 농민조합은 합법적 농민조합에서 혁명적 농민조합으로의 전환을 이루고 그 전위 조직으로 적우동맹까지 설립한 유일한 지역이었다.

이곳에서는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1927년을 기준으로 전후기로 나누어 1930년대 초까지 청년운동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사회운동의 배경으로 영동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먼저 1920년대 이후의 영동지역에서 전개된 청년운동과 그 이전의 민족운동이 연관성이나 주체 세력들을 파악해 보기 위해 1920년대 이전에 영동지역에서 전개되었던 민족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1920년에 창립되었던 영동청년회의 주체세력은 누구였으며, 그들이 추진한 주요사업은 무엇이고 그 한계점은 무엇 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영동혁신청년들은 어떻게 그 한계를 극복하고 당시 유행하던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는 영동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청년운동과 부분운동을 조화시키려 했으며, 외부적으로는 당시 조선사회에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공산주의자들과 어떻게 연계활동을 펼쳐보려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27년 6월 이후 혁신청년들이 검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를

---

5) 김석근, 「1930년대 한국 농촌사회와 공산주의운동」 ; 「적색농민조합운동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1992.

6) 장승순, 「1920년대 충북지역 청년회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중원문화연구』제23집, 2015.

7) 1920년대 이후 영동지역 신교육을 받고 나서 신문화 중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청년들을 혁신청년으로 명명한다.

1920년대 후반기로 규정하고 그 시기에 전개되는 청년운동은 이 글의 분량으로 인하여 다음 기회에 발표하기로 한다.

이 글을 쓰는데 주로 사용한 자료는 당시 발행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등의 신문자료와 『장준 외 10인 판결문』, 『장준 외 6인 판결문』의 2건의 판결문, 적우동맹 검거 과정을 다룬 『조선 사상범 검거 실화집』과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자료들이다.

## II. 사회적·경제적 배경

영동 지역은 지역적으로 충청지역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다. 행정구역은 영동을 중심으로 황간, 용화, 심천, 상촌, 양산, 용산, 황금, 매곡 등 13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동 지역의 주변은 서쪽으로는 전라북도 무주와 충청남도 금산으로 이어져 있고, 동쪽으로는 경상북도 상주 및 김천, 서쪽으로는 옥천에 접해있는 충청, 전라, 경상 3도의 접경지역이다. 영동군내로 금강 상류인 금강이 황간, 학산을 경유하여 흐른다.

교통로는 서쪽으로 무주, 안성, 장수, 전주를 잇는 도로가 있고, 북쪽으로는 청산, 보은, 청주를 잇는 도로가 있다. 한편 경부선 철로가 영동, 심천, 황간, 추풍령 4곳을 통과하며, 부산과 147리이며 서울과 134리로서 거의 경부선에 중앙에 있어 인접지역과는 물론 서울과 부산과의 교통을 편리하게 했다.<sup>8)</sup>

영동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1928년 당시 충북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며 살펴보았다.<sup>9)</sup>

8) 김중혁, 『일제시기 한국 철도망의 확산과 지역구조의 변동』, 선인, 2017, 142~143쪽 ; 天野行武, 『忠北産業誌』, 日東印刷株式會社, 1923, 212~213쪽.

9) 1931년 당시는 충북 전체 10군의 인구수 900,226명으로서 조선전체 인구 21,058,305명에 대하여 4.29%에 해당하고 13도 중 12위에 속한다. 그것은 대정 14년 4.34%에 비교하면 본도의 인구는 조선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이 줄어든 것이지만 그 순위는 의연하게 12위이다(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忠清北道), 1932, 1쪽).

표 1. 충북지역의 호구 및 인구수

구분	호수 (戶)				인구수 (名)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합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합계
청주	28,498	853	75	29,426	158,785	3,325	263	162,373
보은	12,173	84	29	12,286	68,451	254	77	68,782
옥천	12,990	132	27	13,149	71,427	497	100	72,024
영동	15,813	255	27	16,095	81,800	995	127	82,922
진천	8,564	59	23	8,646	44,297	172	87	44,556
괴산	19,228	136	50	19,414	100,909	466	112	101,487
음성	12,445	78	41	12,564	66,342	242	104	66,688
충주	19,538	310	34	19,882	102,869	1,062	123	104,054
제천	15,308	95	15	15,418	77,982	291	53	78,326
단양	9,043	49	4	9,096	46,489	144	17	46,650
합계	153,600	2,051	325	155,976	819,351	7,448	1,063	827,862

자료: 忠淸北道, 『忠淸北道要覽』, 行政學會印刷所, 1928, 5쪽.

영동지역의 인구는 1928년 현재, 충북 지역의 청주의 인구가 162,373명, 충주의 104,054명, 괴산의 101,487명의 다음으로 82,922명으로 충북지역 중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이다. 그 인구 증가는 특히 1914년 이후 1917년까지 약 3년 간 연평균 1,820명이었을 정도로 그 증가율이 컸다.

1932년 통계에 따르면, 영동지역에는 조선인이 84,932명으로 그중 12,589명이 영동면에 거주했고, 일본인은 영동면에 525명이 거주하며 그 외 지역에 인구까지 합치면 총 976명이 영동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인은 147명이었고 그 외에 다른 외국인은 거의 없었다.<sup>10)</sup>

영동지역민의 교육 정도를 알아보기 문자 해독수준을 살펴보면, 독서 수준은 한글과 일본어를 읽거나 쓸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4,640명이었고,

10)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忠淸北道), 1932, 24~25쪽 ; 1931년도 자료에는 중국인이 67명, 기타 외국인이 2명이 기록되어 있다(忠淸北道, 『道勢一斑』, 1932, 2쪽).

일본어만 쓸 수 있는 경우가 709명, 한글만 쓸 수 있는 경우가 10,075명이다. 특히 한글과 일본어를 읽거나 쓸 수 없는 경우가 70,633명으로 영동지역민들의 83%가 거의 문맹수준이었다<sup>11)</sup>.

영동지역민의 직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남성 인구 25,820명 중에서 23,104명, 광업은 131명, 공업은 518명, 상업은 747명, 교통업에는 195명, 공무자유업에는 385명 등이고 무직자가 17,483명이었다.<sup>12)</sup>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체 영동지역민 중에서 89.5%나 되지만 무직자도 21%나 되었다. 이처럼 영동지역민들의 주된 산업은 농업이었다.

영동지역의 경지 면적은 논 5,828.4정보, 밭 6,692정보로 논밭이 12,520.6정보이며,<sup>13)</sup> 경지면적 중 논의 비율은 45%이지만 대부분의 밭의 경우도 답전혼용지대로 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에 속한다.<sup>14)</sup> 영동지역의 계층별 농사 호수 및 농가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계층별 농사호수 및 그 비율(1930)

구분	영동군		충청북도	
	호수	비율	호수	비율
자작농	1,835	13.1	16,152	12.2
자작 겸 소작농	5,231	39.5	44,392	33.7
소작농	6,178	46.8	71,346	54.1
통계	13,241	100	131,890	100

자료: 朝鮮總督府, 『朝鮮 ノ小作慣行』, 下卷, 續篇, 1932, 114쪽.

영동지역 계층별 농가구성은 지주호수가 빠져있기는 하지만, 1930년대 통계로 보면, 자작 농가호수는 1,832호로 전체의 13.1%에 불과하고, 자작 겸 소작 농가호수는 5,231호로 39.5%, 그리고 순소작 농가 호수는 6,178호로 전체비율의 46.8%로 자작 겸 소작농을 포함한 소작농가 전체 비율

11)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32, 34~35쪽.

12)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32, 38~39쪽. 이 통계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13) 忠淸北道, 앞의 책, 1932, 5쪽.

14) 印貞植, 『朝鮮의農業地帶』(東京), 生活社, 1936, 40쪽.

은 86.3%에 이르는 것이다. 이 통계로만 보더라도 영동지역의 농민들은 대부분 소작료를 납부하며 지주나 마름에게 착취를 당하며 그들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면 영동지역 지주들의 존재 형태를 알아보자.

표 3. 관내·관의 지주의 소작지 면적 비율

구분	군내지주 소작지	도내지주 소작지	도외지주 소작지
영동	5.0	1.5	3.5
충북	6.5	1.1	2.4
전국	6.9	1.8	1.3

자료: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 下卷, 續篇, 1932, 2~3쪽.

영동지역의 소작지는 군내지주의 비율이 50%로 충북 65%나 전국 69%보다 비율이 10%이상 낮으며 상대적으로 도내지주의 비율은 전국적인 평균과 비슷하지만, 특히 도외지주의 비율은 전국 13%와 충북 24%보다 현격하게 높은 35%나 된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영동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작쟁의의 대부분은 부재지주의 토지에서 마름의 횡포에서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sup>15)</sup>

농업 외의 산업으로는 일본인 거상영목이 경영하는 조선공장이 있으며, 그밖에 운수, 정미업 등이 있으나 미미한 편이고, 그나마 대부분의 상권은 일본인이 쥐고 있었다.<sup>16)</sup>

이상으로 1920년대 영동지역 사회 경제적 상황을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영동지역민의 대부분은 농민들이었고, 그 농민들은 대부분 열악한 노

15) 마름제도의 폐해를 몇 가지 기술해 본다. 1. 마름이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를 소작료보다 차이를 두어 소작료를 부당하게 징수하여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 2. 마름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작료의 인상 등으로 소작인들을 압박하고 소작료 이외에도 소작인에 대하여 금품의 증여 혹은 노동의 제공 등을 요구한다. 3. 마름은 지주 또는 지주의 대리인으로 과건된 자의 접대비 등으로 소작인들에게 많은 것을 부당하게 한다(朝鮮總督府, 『朝鮮の小作慣行』, 1931, 246~247쪽).

16) 忠淸北道, 앞의 책, 1932, 9~12쪽.

동조건에서 소작을 하며 헐벗고 빛에 시달리는 빈농들이었다. 그들은 열악한 생활 조건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도 박탈당하여 그야말로 무지몽매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궁핍한 농민들은 너무나 무지하여 생존권 투쟁에서 사회주의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한다는 각성이 미약했다. 그리하여 농촌의 주인이 농민이 아니었던 것처럼 농민운동의 주인도 농민이 아니었다.<sup>17)</sup>

그러나 일제는 영동지역 농민들을 사회운동의 주체세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세력임을 보여주었다. 일제는 농촌에서 흔히 발생하는 소작문제를 전망하면서 “소작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하지 않는 한, 장래 소작쟁의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예상할 수가 있다. … 민족적 반감을 선동하는 불량한 무리들이 배출되어 종래의 사태가 분규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대책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후의 농업문제는 그러한 외부적인 자극과 농민들의 자각에 의하여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래 일층 더 주의를 필요함은 물론이다.”<sup>18)</sup>라고 하면서 일제 경찰은 농민들도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민족적 반감을 선동하는 사회운동가들에 의해서 충분히 각종 사회운동을 동참할 잠재세력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파악하였다.

이것이 1920~30년대에 농민들의 의식고양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 청년단체와 소작인 농민조합이 조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농민들을 어떻게 민족해방운동은 물론 농민의 계급혁명의 원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당시 사회운동을 하는 운동가들의 역할이었다.

### Ⅲ. 1920년대 이전의 운동

충북지역에서 의병운동은 1896년 유인석을 중심으로 한 호좌의진의 기병을 시작으로 하여 191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처음 의병을 일으켰던 호좌의진이 제천 남산전투에서 패하고 압록강을 건너 요동

17)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3,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183쪽.

18)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31, 62쪽.

으로 건너가는 북행을 택하자,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의병들은 자기 지역에 잔류하며 새로운 의병 활동지를 찾아 흩어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의병들의 활동지도 점차 확대되었다. 영동지역은 지형상 산악이 발달하고 의병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3도 지역과 접경을 하고 있어 의병들의 중요한 활동지가 되었다. 영동지역에서 전개된 의병의 활동 상황을 몇 가지 사례로 살펴본다.

사례-1 : 충청도 보은 청산 황간 경상도 김산 개령 등 각 군 경계에 요사이 화적이 크게 성행하여 혹 30~40명의 무리를 지어 길로 다니며 거민의 재산을 겁탈하고 혹 죽은 사람의 묘를 파고 묘주인에게 돈을 빼앗으며 혹 부자의 돈을 불러먹기도 한다. 그곳 지방관들은 해당 군 경내에 이러한 적환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당초에 잡으려는 생각도 하지 않으므로 도로에 행인이 없고 거민들이 전접할 수 없다고 한다.<sup>19)</sup>

사례-2 : 상월 23일에 무뢰배 30명이 白晝橫行하여 본군 서면 심천리 등지에 와서 촌민을 결박위협하며, 掘塚討財之擧가 망유기극하고 행수포군이 총 2병을 겁탈하며 본면 색리의 공진수쇄 백여냥과 의관을 창거하고 무수난타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하여 순교 10여 명을 급파하였다.<sup>20)</sup>

사례-3 : 영동군보에는 음력 9월 초3일에 적한 70~80명이 각자 총검을 가지고 황간으로 본군 고자동으로 들어와 민간의 재산을 약탈하였고, 이홍산, 이개령, 정참봉, 송주서 등 제인의 집에 들어가 의복 폐물전량을 몰수 약탈하였다.<sup>21)</sup>

사례-4 : 영동군에 일본수비대 30명이 래주하였다고 해당군수 서민보가 내부에 보고하였다.<sup>22)</sup>

사례-5 : 영동 이남 30여리 지역에서 영동순사 1명이 본월 10일 의도에게 피해하고 추풍령에 래습할 모양이 있음으로 계엄중이라.<sup>23)</sup>

---

19) 『황성신문』 1897년 10월 14일.

20) 『황성신문』 1901년 4월 25일.

21) 『황성신문』 1901년 11월 20일.

22) 『황성신문』 1907년 10월 6일.

23) 『황성신문』 1907년 10월 13일.

사례-6 : 의병 30여 명이 충북 영동군과 전북 무주군 경계에 서 화약을 제조하고 약식을 구호하는 활동을 하는 중이라는 첩보를 받았다.<sup>24)</sup>

이렇게 의병들은 영동지역이 산악이 발달하고 경상도 전라도 등의 접경지역인 지리적 장점을 이용하여 경상도 개령지역이나 전라도 무주군 등지의 의병과 연합하여 자유롭게 이동해 가며 일제에 맞서 싸우거나 타락한 관리들이나 부유민들을 처단해 나가는 활동을 전개하였다.<sup>25)</sup> 영동지역이 의병들의 중요한 활동지가 되자 영동지역 농민들이 의병이 되어 활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의병들의 활동을 보고 일제는 “양민으로 폭도와 한패가 되어 諸處를 배회하는 것이 아니고 평민으로서 자가에 있으면서 그 부락 또는 부군에서 군대 경찰의 행동으로 폭도에 관계되는 사건이 있을 때는 이를 그 수괴에게 통하고 있다.”라고 하거나 “낮에는 집에서 수확하고 밤에는 의병으로 무리를 지어 약탈하는 경우도 있고, 수확기를 당하여는 대개 양민이 되어 수확에 종사함으로써 良匪의 식별이 곤란할 우려가 많다.”고 토로할 정도였다.<sup>26)</sup>

그러나 국권이 피탈된 이후 뚜렷하게 전개된 운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1919년에 들어와 고종의 사망소식을 접하자, 국장에 즈음하여 일부 양반 유생들은 哀悼謹愼의 뜻을 표하는 태도로 서울에 갔다. 국장을 목격하고 돌아온 영동지역의 양반 유생들은 3월 3일에 충군의식으로 이태왕 요배식을 거행하였다.

영동 방촌리 유지 이병홍, 문병채, 박정보, 표상익, 김현성, 박문호, 홍재원 등 제씨의 백여명의 발기로 지난 3일 오전 8시 30분부터 북방산에서 이태왕국장요배식을 계획하여 이행하고 정오에 해산하였다.<sup>27)</sup>

24) 『폭도에 관한 편책』 1908년 3월 7일.

25) 김상기, 「한말 충청지방에서의 의병투쟁과 그 성격」, 『청계사학』13, 1996, 463쪽.

26) 장승순, 「한말 충북지역 의병운동의 민중운동적 성격」, 『충북사학』제24집, 2010, 165~167쪽.

27) 『매일신보』 1919년 3월 8일.

그러나 영동지역민 중에서 상경하였다가 돌아온 이들이 제공하는 독립 선언서를 통해서나 아니면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운동의 경험담, 그리고 3·1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신문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이들은 당시 사회정세나 분위기 등을 파악하며 3·1운동에 동참하였다.<sup>28)</sup>

영동지역에서의 3·1운동은 3월 25일의 운동을 시작으로 29일 학산에서 두 차례의 시위와 4월 1일 매곡, 4월 3일 양강면 괴목리와 학산, 4월 4일 영동과 매곡, 4월 6일 추풍령에서 각각 시위를 전개하는 모습으로 운동을 전개하였다. 영동지역 3·1운동의 전개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3월 25일 장날 계산리 등 여러 곳에 태극기가 배포되는 독립운동으로 시작되었다.<sup>29)</sup> 영동교 근방에 사방 1.3m 태극기에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기가 게양되었고, 여러 곳에 종이 태극기 150여 장이 배포되었다. 양강에서는 면내에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벽보가 붙여졌다. 그들은 4월 3일에도 박중옥, 김용문 등이 면민 200여 명과 면사무소 부근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경찰 주재소로 가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순사보 김영환을 구타하는 등 일제를 응징하였다.<sup>30)</sup>

3월 29일 학산리에서 300여 명이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관공서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다. 또한 양산면 유곡리에서는 보통학교 학생 이흥연과 이성주가 목판에 ‘대한독립만세’를 크게 새겨 큰 길가에 세워 놓은 것을 일경들이 발견하였다. 일경들은 그들을 체포하여 학산 서산주재소로 압송하여 취조하였다. 저녁때 약 300명의 군중들은 주재소로 가서 구급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일경들이 석방하지 않자, 군중들은 투석 등으로 주재소를 공격하였다. 주재소의 통보를 받은 영동경찰서가 즉시 순사 5명을 급파하여 지원함으로 군중들은 일단 해산하였다. 그러나 이튿날인 3월

---

28) 朝鮮憲兵隊司令部, 『朝鮮騷擾事件狀況』, 極東研究所出版會, 1929, 4쪽.

29) 3·1운동이 발발하고 나서 3월 2일 독립선언서 268매가 청주에서 발견되어 관계자를 검거하고 철저히 3·1운동이 전개되는 것을 탄압했지만 충북지역에서도 3월 19일 괴산에서 군중 약 6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전개하고, 괴산 경찰서를 3회나 습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4월 중순경까지 58회에 걸쳐 전개되었다(金正明, 『朝鮮獨立運動』1(民族主義篇), 原書房 1967, 316쪽).

30) 金正明, 앞의 책, 原書房 1967, 508쪽.

30일 서산리 주재소에서 양산의 이채연, 이현주 등의 주도로 구속학생을 구출하기 위한 운동이 있었다. 이현주, 이관연, 이기주 등은 이홍연, 이성주를 구출하기 위해 영동 무주간 도로공사에 동원된 양산면민들을 권유하여 서산주재소에서 만세를 부르기로 하였다. 오후 2시경 서산주재소에서 이채연은 면민 200여 명에게 손을 흔들며 만세를 불렀고, 이어 면민들은 주재소를 공격하여 이홍연, 이성주를 탈출시키고 돌로 유리창을 깨뜨리며 실내에 들어가 전화기 등을 파손하였다. 또한 일경에게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게 하였다.<sup>31)</sup>

4월 1일 황간에서는 역 앞산에서 수백 명이 햇불을 올리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때 냇가 건너 예배당에서는 종소리를 신호로 교인들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sup>32)</sup>

4월 3일에는 양봉식 등이 주도하여 만세시위가 있었다. 양봉식은 2~3일 전부터 면내 마을을 돌면서 주민들에게 만세를 함께 부를 것을 설득하였다. 그리고 4월 3일 오후 3시경 면민들은 만세를 부르기 위해 면사무소로 떠났다. 양봉식은 판문 아래에 서서 상묘배부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이어 “상묘를 처분하자”는 소리가 나왔고, 군중들도 공감하여 박수를 쳤다. 군중들은 상묘 약 28,000본을 모두 뽑아 부근에 흩뜨리고 면사무소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이어서 양봉식은 ‘상묘를 이렇게 흩뜨려 놓으면 내일 다시 주워 모아서 마을 주민에게 배부할 것이다. 상묘를 소각하지 않으면 면민들은 대금을 지불하게 되고 또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 제일로 소각해 버리자’고 주장하였다. 군중들은 상묘를 모아 면사무소 앞에서 소각하였는데 이때 소각된 상묘는 27,000본이었다.<sup>33)</sup>

4월 4일에는 박명월의 碑앞에 모여 박성하, 한의교, 정성백, 장인덕, 김태규, 정우문, 한광교 등이 독립만세를 약속하고 오후 2시 경 시장의 약 2,000명과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일경들이 해산을 강요하였으나 군중들은 불응하여 더욱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어 일경의 무차별적인 사격에 군중들은 몽둥이로 맞서 저항하였으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sup>34)</sup>

31) 金正明, 앞의 책, 原書房 1967, 505쪽.

3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권, 95~96쪽.

33)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기1), 1977, 95~98쪽. 98. 378쪽.

위에서 살펴 본 영동지역의 3·1운동 중에서 가장 커다란 시위는 영동에서의 시위였다. 4월 4일 영동시장에서 2,000여 군중이 모여 경찰서를 습격하고 투석, 항거하면서 전개되어 시위는 일병들과 충돌하여 즉사 6명, 중상 8명, 5명이 검거되고, 일본 경찰도 2명 부상을 당하는 격렬한 모습을 보였다.

영동지역의 3·1운동은 시위에 참가 했던 300여 군중은 조산 경찰주재소 및 면사무소를 습격, 파괴하였으며, 특히 면사무소의 뽕나무 묘목 2만 8,000여 그루, 소나무 묘목 1만여 그루를 불태워 버렸다. 이는 일제가 묘목을 토지 없는 농민에게도 강제로 배부하여 대금을 징수하였기 때문에 일으킨 행위였다. 한말 의병항쟁과정의 전통 위에 마련된 민족적 감정에 의해 촉발된 면이 보인다. 학산면 주모자인 양봉식은 이강년 부대에서 활약하던 의병 출신의 지사로서, 그는 학산면의 운동만이 아니라 이웃 군인 무주, 금산, 옥산, 이원 등에서도 선언서를 배포해서 운동 전개에 큰 역할을 했다.

영동지역의 3·1운동은 한말 의병운동의 전통 위에, 일제의 경제적 침략에 항거한 운동이었다.<sup>35)</sup> 3·1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이 운동 이후 대중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하게 되었으며, 특히 청년층의 정치적 각성은 두드러졌다. 다음은 일제가 파악한 충북지역의 3·1운동에 참여한 이들의 불평 사항이다.

1. 조선인 관리 대우 열등
2. 조선을 식민지시 보며 조선인을 멸시 냉대하는 것
3. 국비로서 해야 할 공사를 부역으로 공사하는 것
4. 공동묘지제를 강행하는 것
5. 인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諸種의 공사를 하는 것

34) 국회도서관, 앞의 책, 1977, 95~98쪽 ; 김진호, 「충북의 3·1운동」, 『역사와 담론』 제68집, 2013, 85쪽.

35) 충북지역에서 3·1운동과 관련하여 피검된 사람은 모두 139명이며 그중 영동 사람은 16명이다. 이 피검자들을 직업별로 분류하면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15명, 잡화상이 1명으로 거의 전부가 농민이었다. 연령별로는 20세 이상이 9명, 30세 이상이 3명, 40세 이상이 4명으로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의 청년이었다(김진호, 앞의 글, 2013, 93~94쪽).

6. 민정을 조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산업을 장려하는 것
7. 행정관리가 오만하여 친절하지 않고 압박으로 대하는 것<sup>36)</sup>

이제 일제는 더 이상 일반 지역민들에 대한 횡포와 무시, 차별, 조선의 전통 관습 무시 그리고 강제 등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3·1운동 이후 또 다르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는 현실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정치적인 관심이 크게 증가되었다.

“3·1운동 이후 불만적인 정치적 사상은 昂上되어 특히 해외 전보의 조선기사 등의 신문 등을 구독하는 것이 증가하여 『大阪每日新聞』이 작년 9월 조선인 구독자가 29부였던 것이 소요기사가 게재되고 나서 증가하여 현재 60부의 구독자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충북지역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높아졌던 것이다. 일제는 3·1운동 이후를 예측하면서 “현재 상태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장래에 독립운동을 기도하는 세력은 또 다른 선동을 할 것이고, 지금의 소요 결과를 관찰하고 망동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소요가 더 볼 수 있는 사조상 인상이 클 것은 장래하등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매번 그 행동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sup>37)</sup>

이렇게 영동지역의 농민들도 이제는 정치적 각성을 바탕으로 영동지역의 사회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 IV. 초기 청년단체의 설립과 활동(1920.8~1923.2)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의 통치방식의 변화로 집회, 결사 등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자, 1920년에 들어서서는 전국 각지에서 각종의 단체

36) 朝鮮憲兵隊司令部, 『朝鮮騷擾事件狀況』, 極東研究所出版會, 1929, 387쪽.

37) 朝鮮憲兵隊司令部, 앞의 책, 極東研究所出版會, 1929, 262쪽.

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동아일보』는 그 상황을 “청년의 모임은 전국에서 하루에 적어도 10여 처씩이오, 현금 서울에서만도 남녀 청년회의 모임은 70여 처 씩이나 되나 제각기 활동하고 날마다 강연이니 연설이니 하여, 밖으로는 사회의 깊은 잠을 깨우기에 힘쓰고, 안으로는 자체 수양에 힘쓰고 있다.”<sup>38)</sup>라고 표현하며 전국적으로 남녀의 청년단체가 하루에도 10여 곳이 생겨날 정도로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단연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청년단체로 지역 청년회의 설립이었다.

영동지역도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발맞추어 자신들의 새로운 사회적 활동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회단체 설립을 간절하게 원하는 지역 유지들과 청년들이 청년회 창설의 발기인이 되어 한뜻으로 의견을 모아 1920년 8월이 되어 영동청년회를 창립하였다.<sup>39)</sup> 이 청년회의 창립은 지역민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기를 창립 당시 지역들의 호응도 대단하여 다수의 군중이 운집하였고, 지방 인사들의 청년회에 대한 찬조도 줄을 이어 그 의연금도 엄청날 정도였다고 한다.<sup>40)</sup>

창립을 마친 영동청년회가 추진한 사업 활동은 첫째, 영동청년회에서 회원들의 지역 현안문제와 당시 사회정세와 시세 파악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자주 강연회와 토론회의 개최하였다. 대개 영동청년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민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였지만, 동경유학생으로 조직된 교육 실업단이 이 영동지역에 도착하여 정열모가 ‘우리의 살길’ 정익성이 ‘교육의 반성’ 등을 강연하기도 하고,<sup>41)</sup> 기회가 되면 서울에서 유명 강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영동청년회관 건립 기념식을 행할 때는 조선사회에서 유명한 최고 강사인 김철수, 최린, 안신행 등을 초빙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강연회에는 청중이 600여 명이나 모일 정도였다. 이때 김철수는 ‘사회 진화와 협동운동’을 최린은 ‘반성’을 안신행은 ‘여자도 사람임을 자각하라’의 강연을 실시하여 많은 갈채와 감동을

38) 『동아일보』 1920년 6월 30일.

39) 「장준 외 10인 판결문」 형공 제269호, 1934.

40) 『동아일보』 1922년 2월 7일 ; 지중세 역, 『조선사상범검거실화집』, 신광출판사, 1946, 81쪽.

41) 『동아일보』 1922년 7월 23일.

주었다.<sup>42)</sup>

또한 특별히 여성들을 위한 강연회도 개최하였다. 여성들을 위한 강연회에서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하거나 청년회원 중에서 여성들이 직접 연사가 되어 강연하기도 하였다. 특히 여성회원 중 김혜경이 ‘현대 청년의 각오’와 이선애는 ‘사람답게 살자’로 강연을 했을 때, 다른 강사보다 더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sup>43)</sup>

토론회는 영동청년회원들이 주제를 정하여 가부로 팀을 나누어 주제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주제는 ‘우리 교육의 급무가 남자이나 여자이나’라거나 ‘우리 생활 향상에는 금전이나 지식이나’ 등 청년회의 주요 사업과 현 사회정세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둘째, 회원 간의 친목 도모나 청년단체의 홍보와 운영 자금의 마련, 나아가 대중을 계몽시킬 목적으로 소인연극단을 조직하여 연극을 공연하기도 하였다.<sup>44)</sup> 그러한 연극 공연은 영동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인근 지역까지 순회공연을 갖기도 했다.<sup>45)</sup> 또한 지역민을 계몽하기 위하여 소인극을 조직하여 영동 각 지역에서 소인극을 진행하고,<sup>46)</sup> 그들의 활동을 주변지역인 무주, 금산, 옥천 등을 순회 공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sup>47)</sup>

셋째, 영동 지역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사회기풍이 경속 천박 음란함에 젖어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사회 기풍을 바로잡고 민풍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박의 금지, 관혼상제에서의 검약, 금주·단연 운동을 전개하거나 환경·위생 사업을 청년회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넣었다.<sup>48)</sup>

넷째, 영동지역 청년운동자들은 청년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자 정

42) 『동아일보』 1923년 5월 9일. 당시 조선청년연합회 집행위원이었던 김철수씨는 영동에 도착하여 영동청년회관에서 강연회를 개최한 바 김철수는 ‘살 道理’를 육병세는 ‘계속적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동아일보』 1923년 3월 14일).

43) 『동아일보』 1922년 12월 26일.

44) 『동아일보』 1921년 10월 6일.

45) 『동아일보』 1921년 10월 6일.

46) 『동아일보』 1921년 9월 24일.

47) 『동아일보』 1921년 10월 13일, 19일, 20일, 1922년 2월 7일.

48) 『동아일보』 1922년 12월 26일.

기적으로 5군 연합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대회 중에 정구대회는 특히 인기가 높았다.<sup>49)</sup> 체육대회를 열어 인근 청년회와 모임과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였다.<sup>50)</sup>

다섯째, 영동청년회의 또 다른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는 교육열에 불타는 지역민들에게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일이다. 신교육보급과 교육진흥을 위하여 교육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끼면서 야학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청년회 명의로는 아니었지만 계산학원이라는 사설강습소를 개설하여 배움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농민들에게 지식의 보급을 행했다.<sup>51)</sup> 차츰 야학 대상자들을 확대하여 여자야학까지 개설하였다.<sup>52)</sup> 이러한 야학의 설치 뜻있는 지역 유지들도 이에 많이 동참했다. 영동청년회의 간부인 송익현 등은 노동야학을 설치하고 일반 노동자를 모집하여 무료로 교수하니 매번 출석하는 학생이 50명을 넘을 정도였다고 밝히고 있다.<sup>53)</sup>

여섯째, 이러한 교육 열기는 지역사회에서 추진하는 학교유치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1922년 11월 23일 이상재 등은 ‘민립대학기성준비회’를 구성하고 발기인 모집하였다. 그 발기인은 각 군별로 2~5인씩 선발하도록 하였다. 이를 독려하기 위해 민립대학기성회의 중앙상무위원이었던 유성준 등이 충북지역을 순회하면서 영동지역에 도착하여 영동청년회관에서 유성준이 ‘대학기성회의 이유’라는 주제 연설을 하자, 500여 명의 관중이 크게 공감하면서 청년회관에서 지역유지들과 청년회원들은 모여 설립 발기회를 조직하기 위해 발기인을 선정하며 동참하려 하였다.<sup>54)</sup>

일곱째, 영동청년회는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먼저 청년회 회관 건립문제가 제기하였고,<sup>55)</sup> 영동청년회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일반 사회의 동정을 얻고자 강연회를 개최하고 지역민의 호응을 얻어 이춘기는 50

---

49) 『동아일보』 1921년 9월 24일.

50) 『동아일보』 1921년 10월 6일, 10월 24일.

51) 『동아일보』 1924년 12월 13일, 1926년 1월 9일.

52) 『동아일보』 1924년 3월 25일.

53) 『동아일보』 1922년 9월 23일.

54) 『동아일보』 1922년 12월 26일.

55) 『동아일보』 1922년 4월 4일, 6일, 9월 22일, 10월 28일.

원을 낼 정도로 열의가 대단했고, 건축 의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순회악극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순극단은 충북 진 지역과 인근 충남, 진라도, 경상도 지역까지 순회하면서 공연을 전개하였다.<sup>56)</sup> 그 결과 지역민들이 적극 협조하여 1,600원 정도를 모을 수 가 있었다.<sup>57)</sup> 여기에는 상업체 간부와 계원일동의 성의로 계금 1천원을 영동청년회관 건축에 의연금을 내기도 하였다.<sup>58)</sup> 이러한 영동지역의 유지들과 청년회 간부들의 노력으로 청년회관을 건립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동청년회가 창립되고 나서 3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다. 그 사업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과 지역민의 근대 지식과 사상의 보급, 문맹 퇴치 등으로 대별되는 계몽활동이었다.<sup>59)</sup>

영동청년회도 1920년대 초기에 들어서서 다른 지역의 청년회처럼 조선 사회에 크게 대두되는 신문화 건설, 문화 향상을 표방하며 지·덕·체 삼육의 발달, 교육의 보급, 산업발달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운동의 실천이었다.<sup>60)</sup> 영동지역의 청년단체도 초기 청년회의 모습이 계몽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계몽운동단체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sup>61)</sup>

영동청년회의 활동이 문화운동의 방향으로만 흐르는 이유는 회비수납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청년회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재정난의 경제적인 면에서 우위권을 장악한 유산계급들이 청년회 활동의 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청년회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을 장악한 유지층은 청년회를 운동에 대한 전망이나 확고한 의지가 결핍된 채 분위기에 휩쓸린 청년 지식층과 청년회의 회장 등 명예를 탐내며 당시 청년회를 무작정

56) 『동아일보』 1921년 10월 19일.

57) 『동아일보』 1923년 1월 5일.

58) 『동아일보』 1922년 4월 4일.

59) 안건호, 「1920년대 전반기 청년운동의 전개」,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63쪽.

60) 박찬승, 『한국 근대정치사상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2, 217쪽 ; 「장준외 10인 판결문」 형공 제269호, 1934.

61) 동선희, 『식민권력과 조선인 지역유력자』, 선인, 2011, 235쪽.

시대적 사조를 추종하는 단체로 운영했기 때문이다.<sup>62)</sup>

그런 모습은 당시 청년회 활동을 함께 하던 혁신청년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활동이었다. 1923년에 지금까지 진행된 영동청년회의 활동을 돌아보며 영동지역의 한 기자는 “영동청년회는 창립된 지 3개 성상이 지났으나 내용과 그 사업이 無別可觀이더니 …… 금번 상업계 제씨와 계원 일동의 성의로 계금 일천원을 영동청년회관 건축에 의연하기로 확정하였다.”<sup>63)</sup>라고 영동청년회가 추진한 사업을 비판하였다.

그렇다면 영동청년회가 설립된 1920부터 1923년까지 영동청년회를 이끌어가던 주요 간부들의 구성은 어떠했을까?

표 4. 영동청년회 간부 현황(1920~23년간)

이름	청년회 직책	중요 경력
육병세	1대 회장	면장, 금융조합장
장준	2대 회장	농업
이재영	부회장	
김극수	학예부장	『조선일보』 신문기자
성동만	체육부장	
김용진	서기	
김행하	덕육부장	신문기자
박건하	산업부장	『동아일보』 지국장
송익현	집행위원	지주, 공영사 주주
송순현	상동	지주
김덕중	상동	공영사 주주
정환수	상동	공영사 주주, 영동면협의회원
전덕표	상동	양조장 경영
이경로	상동	지주, 면장
송진현	상동	지주
손제하	상동	지주, 공영사 사장

자료: 『조선일보』 1920년 6월 30일 ; 『동아일보』 1923년 3월 29일 ; 天野行武, 『忠北産業誌』, 日東印刷株式會社, 1923, 189쪽 ; 「장준 외 6인 판결문」, 형공 제125호, 1928년.

62) 박찬승, 앞의 책, 역사비평사, 1992, 230쪽.

63) 『동아일보』 1922년 4월 4일.

초대 청년회장이었던 육병세는 심천면장 출신으로 영동 이원지역의 금융조합장을 역임하는 지역 유지였다.<sup>64)</sup> 손재하는 영동우체국 고용인으로 채용되었다가 퇴직하고 구한국경부고문부에서 통역으로 근무하다가 일본에 유학하고 돌아온 후 실업에 뜻을 두고 고분 분투하여 1910년에는 미곡상을 경영하며 1922년에는 영동미곡업자 중에는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고 영동지역에 269정보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로 군림하고 있던 인물이다.<sup>65)</sup> 이경로는 1915년 영동군 황금면장을 시작으로 1919년 매곡면장, 1921년 영동면장을 역임했다.<sup>66)</sup> 정환수는 영동면협의원이며 공영사 주주였다.<sup>67)</sup> 박건하는 『동아일보』 영동지국장을 역임하고 있었고<sup>68)</sup> 그 외에 송익현, 송순현, 송진현 등은 영동 지역 지주이며 영동지역에 근거를 둔 공영사<sup>69)</sup>의 대주주들이었다.

그러나 청년회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는 이재영, 김행하, 김극수, 성동만 등으로 지역에서 신교육을 받고 신문 기자나 지역 활동가로 활동하는 신지식을 소유한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일본에 유학을 하거나 기타 학문을 배운 청년 학생들로서 일제가 말하는 惡思想에 감염되어 이 사상을 사회에 적용시키려는 이들이었다.<sup>70)</sup>

이처럼 영동청년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참여한 세력은 유산계급, 무산계급, 지식계급 등 모든 계층을 망라한 조직이었다. 다시 말하면 영

64)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직원록』(충청북도), 1923년 ; 이원금융조합은 1919년 8월 13일 자본금 6,000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당시 적립금이 12,000에 이르는 조합이었다. 조합장은 육병세, 중역은 이병일이었다(中村資良,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 東亞經濟時報社, 1933).

65) 天野行武, 앞의 책, 1923, 192쪽 ; 허중, 「반민특위 충청북도 조사부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제44집, 2008, 240쪽.

66) 『대한민국인사록』, 116쪽.

67) 安齊震堂, 『忠北の文化と人』, 호남일보충북총지사, 1928, 230쪽.

68) 『동아일보』 1930년 12월 24일.

69) 공영사는 1924년 9월 7일, 영동군 계산리에 본점을 두고 자본금 20만 원으로 설립된 대금업, 창고업, 위탁업, 농수산물 판매업, 운송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하는 운수창고 업체였다. 대표자는 김용래, 전무이사 김덕중, 상무이사로는 송순현, 송익현, 이사로는 송태현, 이상하 등이었다(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亞經濟時報社, 1925).

70) 朝鮮憲兵隊司令部, 앞의 책, 極東研究所出版會, 1929, 387쪽.

동청년회는 주도층이 서로 다른 성격에서 오는 내부 파쟁일 것이다. 그중에 유산계급들은 실무와 별 관련이 없는 집행위원 등을 장악하고 청년회의 운영을 좌지우지했던 것이다.

유산자 영동청년회의 간부들은 운동에 대한 전망이나 확고한 의지가 결핍된 채 분위기에 휩쓸린 청년 지식층과 명예를 탐낸 지방 유지들에 의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지역 유지들은 청년회 활동을 통해 자신의 권세를 높이는 동시에 청년회의 장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려 하였던 것이다. 청년회를 자신의 유지 간판 등으로 사용하려는 기존 세력들에게서 분리시킬 수는 없는 것이었다.

## V. 청년단체의 성격 변화와 활동(1923.3~1927.6)

문화운동만으로 흐르는 청년회는 혁신청년들에게는 커다란 불만 사항이었다. 그 불만은 청년회의 주도층을 이루는 유산자 그룹과 혁신청년들 사이에 갈등의 요인이 되어 결국 1923년에는 두 계층 간의 대립이 표면화되었다.

1923년 1월 초부터 영동지역 유지들과 유지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청년회 간부들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회를 이용하여 소위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려 하였다. 그들은 1923년 1월 초 음력 대목 장날을 이용하여 수천 개의 선전문을 만들어 배포하며 ‘토산장려’ 선전문운동을 전개하였다.<sup>71)</sup> 그러나 장준, 김행하 등 영동청년회의 청년층을 이루는 혁신간부들은 이에 동조하지 않고, 소작인을 중심으로 한 영동소작인조합 창립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1920년대 들어서면서 소작관계가 침체화 되면서 소작쟁의는 식민지 조선의 어느 지역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항상적 사건이 되었는데 정작 영

---

71) 『동아일보』 1923년 2월 13일. 이것은 청년회의 유산 간부들이 일인들의 상권 장악에 대항하는 일종의 물산장려운동이었다. 당시 영동청년회의 간부 중에는 商會社였던 共榮社의 간부들이 많았는데, 영동청년회관을 건립할 때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것도 상업계원들이었다.

동지역에서는 소작인단체가 설립되지 못했다. 아직 청년회가 지역유지들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서 소작농민들의 조직으로 소작인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리하여 소작인 중심의 소작인 조합은 설립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영동청년회원들은 1923년 2월 조선소작인상조회 영동지회를 창립하였다.<sup>72)</sup>

원래 조선소작인상조회는 1920년 8월 27일 송병준이 아들 송중헌과 이만승 외 20명을 받기인으로 해서 창립한 단체이다.<sup>73)</sup> 소작인상조회는 앞으로 격화될 농민운동에 대처해서 소작쟁의를 미리 방지하거나 파괴하기 위해 당국과 지주층의 지원으로 만든 조직이다. 겉으로는 소작인을 보호해서 지주와 소작인 서로의 이익증진을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작인조합은 지주·소작인의 상호단체에 불과한 것이었다.<sup>74)</sup> 분명한 것은 소작인 본위의 소작인을 위한 소작인조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선소작인조합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던 혁신청년들은 조선소작인상조회 영동지회로 창립되는 것이 불만스러웠다.

장준은 조선소작인상조회 영동지회 창립 장소에서 소작인조합에 관한 자기 소신을 밝혔다.

“자래로 지주의 횡포에 대하여 소작인 사이에 여론이 비등함은 이미 다 아는 바이다. 몇 사람의 받기로 경성에 본회를 둔 조선 소작인상조회 영동지회를 설립코자 200여 명의 소작인이 청년회관에 집합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의사를 진행하였던 바, 장준은 지회가 필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송병준은 현시 귀족계급에 처하였고, 또 조선의 대지주로 지주와 상대되는 소작인 상조회의 회장이라 함은 첫째로 회장을 신임치 못하겠으니 소작인은 자립의 정신을 가지고 영동소작인상조회로 함이 가하다고 하여 열렬히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박수 찬성하여 즉석에서 영동소작인상조회로 함이 가하다.”

72) 『동아일보』 1923년 2월 3일.

73)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238~239쪽 ; 朝鮮總督府警務局, 『高等警察關係年表』, 1931, 71쪽.

74)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3, 89쪽.

장준은 영동에서 설립하는 조선소작인상조회는 조선소작인상조회 영동 지회가 아니라 영동소작인상조회라고 명칭을 변경하며 그 조합의 주체도 소작인인 소작인중심의 소작단체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재차 소작인의 입장에서 영동소작인상조회가 실행할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1. 소작료는 재래의 상당한 도조로 低하되 無宅租는 8두로서 1 석으로 看高함
2. 지세 및 공과금은 지주의 부담으로 함
3. 斗量은 필히 斗漑를 用함으로 함
4. 연초는 소작인이 淸득할 사
5. 재래의 두세를 淸지할 사
6. 소작료 운반에 대하여는 10일 이상은 불입할 것
7. 천재지변에 因한 방축공사비 1원 이상을 요할시 지주의 부담으로 할 일
8. 소작권에 대해서는 소작인이 과실이 없는 한 이동을 불용할 일
9. 지주 또는 마름의 무상노동은 절대 불용할 사
10. 소작인은 지원주민을 본위로 하고 소작면적은 균등을 기할 것<sup>75)</sup>

이 결의문만 보더라도 영동소작인상조회는 지주와 소작인의 상부상조 단체가 아니라 소작인을 위한 단체임이 분명했다. 영동 소작인상조회가 보인 이러한 결정은 영동지역 지주들에겐 큰 충격이었다. 영동지역의 지주들은 농회장 김홍규<sup>76)</sup>를 중심으로 영동소작인상조회의 결의문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뚜렷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었던 지주들은 영동소작인 상조회의 결의문에서 채택한 요구사항을 대

75) 『동아일보』 1923년 2월 3일.

76) 김홍규는 청주군 남이면 팔봉리 출신으로 어려서 한문을 배웠으나 일본어를 배워 1895년 인천항 주사로 임명된 이후 함경남도, 강원도 군수를 거쳐 1909년 이후에는 충북 영춘군수, 황간군수, 체천군수 등을 역임하고 1913년 영동군수로 부임한 이래 1923년 당시에는 군농회장을 겸하고 있었다. 김홍규는 영동지역 지주회를 주도하며 지역유지 중심의 농회를 이끌고 있었다(天野行武, 앞의 책, 日東印刷株式會社, 1923, 189쪽).

부분 그대로 수렴할 수밖에 없었다.<sup>77)</sup> 이러한 일이 있는 후 청년회의 간부들은 유산 간부들과 혁신청년 간의 반목은 깊어만 갔다.

영동청년회의 활동에 새로운 변화를 바람으로 다가온 것은 1923년 봄 서울청년회의 주도하에 열린 조선청년당대회였다. 전조선청년당대회는 1923년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는 서울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전 조선청년당대회를 개최하여 사회주의적 청년운동의 통일을 기도하였다.<sup>78)</sup> 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서울청년회의 간부들과 주최 단체의 회원들이 각지를 순회하며 지방 청년단체의 참여를 독려하였다.<sup>79)</sup> 이때 순회단의 방문을 받은 청년회에서는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김극수와 육병세가 영동청년회의 대표 자격으로 이 대회에 참석하였다.<sup>80)</sup>

이 청년당대회는 1923년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는데,

77) 당시 지주회에서 결의하고 발표한 결의 내용이다. 1. 소작료는 재래의 상당한 도조에 의하되 무택조는 두로써 1석으로 할 일, 2. 지세 및 공과금은 지주가 부담할 일, 3. 두량은 필히 두 개를 사용할 사, 4. 제초는 전부 소작인이 취득할 사, 5. 재래의 두세는 철폐할 사, 6. 소작료 운반에 대하여는 12리 까지 무료로 할 것, 7. 천재지변에 인하여 3원 이상의 비용이 될 시에는 이를 지주가 부담할 사, 8. 소작권에 대해서는 소작인이 과실이 없는 한 이동치 말 것, 9. 무상노동은 절대로 불용할 사, 10. 소작인은 원주민을 본위로 하고 소작 면적은 균등을 기도할 사(『동아일보』 1923년 2월 26일).

78) 청년당대회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조선인으로 조직된 남녀 청년 단체와 주최 단체나 참가단체의 추천을 받은 개인이 참여할 수 있었다. 이 회의는 2일간 진행되며 분과 모임토의를 가졌다. 청년당 대회는 3개의 분과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는데 1분과는 부인, 교육, 종교문제를 제2분과 회의에서는 경제, 노동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는데, 이곳에서는 상해파와 청년연합회가 주도하는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비판에 집중되었고, 제3분과(사회, 청년회 발전, 민족문제)에서는 사회문제로 실업자와 무산자의 구제방안을 논의하면서 청년회의 발전문제의 중심은 청년당대회의 위상과 관련한 것으로 보면서 이를 위해 『동아일보』 불매동맹의 선전과 성토, 강연, 청년연합회 신임간부에 대한 불신임, 송병준 등 친일파가 만든 조선소작인상조회, 조선물산장려운동회 타파, 사기공산당 사건 관련자 추방을 결의했다(이현주, 『한국 사회주의 세력의 형성 : 1919~1923』, 일조각, 2003, 238~260쪽).

79)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115~116쪽.

80) 선우기성, 『한국 청년운동사』, 금문사, 1973, 504~505쪽 ;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116쪽.

이 대회에는 지역청년회에서 94개 단체나 참여하였다. 이 대회를 주도하던 서울청년회에서는 이 대회를 통하여 각 지방 청년단체들이 서울청년회의 지도 아래 사회주의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고<sup>81)</sup> 대중적 해방운동의 전위대가 되게 하려 하였다.<sup>82)</sup> 서울청년회가 이 대회에서 발표했던 「전조선청년당대회선언문」의 내용이다.

1. 오인은 그 불합리한 현대경제조직 및 사회제도와 차에 부속한 법제 전통 습관 사상 예술 등의 부르조아적 모든 문화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고서 인간성의 진리에 적합한 사회생활을 창조하여 빈부의 현격이 없는 사회, 계급의 알력이 없는 사회 곧 모든 인간이 노동하고 최고문화적 향락생활을 균형케 하는 신사회의 실천을 목표로 삼음.

2. 오인은 국적의 구별 인종의 차별이 없는 자유인 사회, 평등인 사회 정의인 사회 평화인 사회 우애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처지에서 연대적 감정을 가진 만국무산동맹주의를 철저히 실행하는 데에 있는 것을 절대로 주장함.

3. 오인은 이상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유요한 방법으로는 오직 계급의식에 각성한 무산계급의 대동단결과 조직적 훈련으로서 종래의 支配壓伏有産階級을 공포 전율케 함에 있는 것을 절대로 확신함.

4. 본 대회는 이상과 같은 목표 주장 신념을 모든 행동의 기초로 삼기를 맹약하고서 차 선언과 분과회 결의안을 채용함.<sup>83)</sup>

즉 청년당대회는 그 선언에서 불합리한 현대의 경제조직 및 사회제도와 이에 부속된 모든 부르주아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 빈부의 간격이 없는 사회, 계급의 알력이 없는 사회, 곧 모든 인간이 노동하고 모든 최고의 문화적 향락을 균형 있게 누리는 신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오직 계급의식에 각성한 무산계급의 대동단결과 조직적 훈련으로써 종래

81) 박찬승, 앞의 책, 역사비평사, 1992, 233쪽.

82) 박철하, 「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 청년운동과 고려공산청년회」, 『역사와 현실』9호, 1993, 254쪽.

83) 전명혁,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 운동연구』, 선인, 2007, 149쪽 재인용.

의 지배계급을 전율케 할 수 있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종래의 청년운동도 사회주의로 그 사상을 전환하여 실천하는 계급투쟁의 노선으로 나가자고 했다.

1923년 전조선청년당대회 이후 장준 등 사회주의사상을 수용한 청년들이 점차 영동지역 사회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했다. 아직 계몽적이고 문화적인 성격의 활동만 하는 영동청년회의 활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혁신청년들이 청년회의 주도권 장악하는 것이 필요했다. 청년당대회의 표방하는 방향전환 노선은 영동지역 혁신청년들에게 그대로 수용되었다. 영동지역의 혁신청년들은 영동지역 청년운동을 문화 계몽운동으로부터 계급운동으로 전향하고 그 운동의 주체 세력도 유산자 계급을 배제하고 장준 등을 중심으로 한 혁신청년으로 교체하려 하였다.<sup>84)</sup> 따라서 이 두 그룹의 마찰은 불가피했다.

그들의 갈등은 영동청년회관 건축비로부터 촉발되었다. 영동청년회관 건축비 부담에 대하여 집행위원 제씨들이 백방으로 그 대책을 연구하였으나 하등의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임시총회를 열고 토의 한 결과 현재 간부는 모두 무산자일 뿐만 아니라 자본가에 대치되는 소작운동에 원조를 함으로 유산계급에게 증오를 받은 터임으로 부채를 청산하기 위하여 기부금 모집이나 기타 관계로 도저히 유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임원을 개선하였다. 신입임원은 모두 유산자 인족 건축비에 대한 채무는 원만하게 해결하였다. 이후 영동청년회는 임원진을 대폭 개편하면서 집행위원을 새로 선출하였다.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집행위원 : 송진헌, 이경노, 송명헌, 송익헌, 육병세, 김덕중, 전덕표, 정환수, 손재하, 송순헌

이들은 모두 표 4에서 살펴보았던 영동청년회를 설립하며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던 유산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청년회 운영에 불만을 갖는 혁신청년들을 경제적인 이유를 미끼로 하여 영동청년회에서 축출하려 하

84) 지중세, 앞의 책, 둘째개, 1984, 80쪽 ; 「장준 외 10인 판결문」 형공 제 269호, 1934.

였다.

청년회에서 배제된 혁신청년들은 영동청년회에 간부직에서 사퇴하고,<sup>85)</sup> 장준을 중심으로 영동청년회에서도 탈퇴하였다.<sup>86)</sup> 영동청년회를 탈퇴한 혁신청년들은 사회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그들의 뜻에 동조하는 영동지역의 사회운동가들을 결집시켰다. 이렇게 모아진 혁신적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영동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으로 활동하기 위해 ‘七月會’라는 단체를 조직했다.<sup>87)</sup>

7월회는 우선 영동지역의 정세를 파악하는데 힘썼다. 그들의 눈에는 영동지역은 아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회운동이 전반적으로 침체상태에 있든 바 기본운동으로부터 점점 조직화하는 금일 사회운동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상을 순화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부흥총회를 열어 7월회의 선언, 강령, 규약 등을 수정하고 새롭게 임원도 선출하였다.

칠월회는 그들의 활동을 위해서는 활동의 기반으로 영동사회에 영동청년회와 같은 활동 기반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혁신청년들은 그들이 주도적으로 조직한 영동소작인상조회를 그런 조직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1923년 9월 장준 등 혁신청년들은 임시총회를 열고 영동소작인상조회에 대하여 현상의 보고한 후 상조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했다. 장준은 “현재의 규칙은 소작인에 한하여 회원이 될 자격이 있고 기타 무산자는 회원이 될 수 자격이 없는 즉, 이로써 만족하기 곤란함으로 처지가 동일한 소작인 이외의 무산자로 일치단결하여 쟁취계급인 유산자에 대항함이 필요하다”는 이유 하에 영동소작인상조회의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자,<sup>88)</sup> 이렇게 사회운동의 부흥을 꾀하는 의미로 회의 명칭도 바꾸자는 김두수의 발언이 채택되어 영동소작인상조회는 영동노동동맹회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이제 영동노동동맹회는 더 이상 소작인만의 조합이 아니라 그 대상을 노

85) 『동아일보』 1923년 7월 26일.

86) 『동아일보』 1920년 6월 30일.

87) 「장준 외 5인 판결문」 형공 제125호, 1928년 6월 20일. 이 사상단체의 명칭을 7월회라고 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7월에 영동청년회를 탈퇴하고 곧바로 설립한 단체라고 7월회라고 명명한 것으로 추측된다.

88) 『동아일보』 1923년 9월 6일.

동자 농민까지 확대하면서 이 지역사회의 사회운동자의 선구자로서 지역 사회인의 합리적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 민족해방운동에 앞장서는 역할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었다.<sup>89)</sup> 그리고 혁신청년들은 서울 청년회가 추구하는 방향처럼 청년회의 운영방식도 종래에 유지되던 집행부의 조직을 전제적인 성격을 띠는 회장제를 집행위원제로 바꾸었다. 조직체계의 변화는 간부와 회장 중심의 청년회를 민주적인 중앙집권제로 바꾸어서 회원의 의사반영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었다.<sup>90)</sup> 이때 집행위원과 임원으로 선출된 이들은 아래와 같다.

집행위원 : 장준, 장철, 김극수, 김행하, 박건하, 함병렬, 정기석, 김병찬, 손상욱<sup>91)</sup>

이 집행위원들은 대부분은 영동청년회 창립될 때 함께 참여했다가 유산자계급과 불화로 탈퇴하여 칠월회를 창립했던 혁신청년들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영동청년회까지 장악한 혁신청년들은 영동지역의 청년운동 단체로서 역할은 칠월회가 담당하고 노동자 농민운동단체로서는 노농동맹이 담당하게 하였다.

영동노농동맹회가 설립된 후 시행한 사업은 농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동지역에서 발생한 소작쟁의의 관여하여 조정 해결하는 일이었다.

영동의 매천 신익리와 양강면의 양정 주촌리 지주 김희수, 손재하의 소작인들은 소작쟁의를 일으켰다. 영동지역의 소작인들은 영동노농동맹회가 정한 소작조례에 의한 소작료를 납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주인 김희수, 손재하 등은 이를 거부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리하여 매천과 양정

89) 서울청년회의 청총발기회에서 밝힌 선언 및 강령은 아래와 같다. 선언 : 아등은 계급적 대단결을 목표로 청년운동의 통일을 도하기 위하여 차의 강령으로써 '조선청년총동맹'을 발기하노라. 아, 차에 공명하려는 각 청년 단체여. 어서 가맹하여라. 단결하자! 강령: 1. 대중 본위의 신사회 건설을 기도함, 1. 조선민중해방운동의 선구가 되기를 기도함(『동아일보』 1924년 3월 2일).

90) 김일수, 「1920년대 경북지역 청년운동」 『한국 근현대청년 운동사』, 풀빛, 1995, 284쪽.

91) 『동아일보』 1923년 9월 6일.

지역에 있던 소작인들은 소작쟁의를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지주들은 소작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이에 영동노동동맹회는 이곳 소작인들을 모아 도조불납동맹을 조직하여 영동소작인상조회가 제정한 소작조례안을 관철 시키려 하였다.<sup>92)</sup>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영동청년회와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소작쟁의의 발생 당사자 중 지주 손재하는 앞에서 언급했던 손재하는 영동청년회 집행위원으로 공영사사장이며 지주였다. 그런데 그 소작분규에 대해서 노동동맹회가 관여하고 도조불납동맹을 조직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유지들과 혁신청년들 간이 간격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결국 혁신청년들은 유산계급과의 관계를 끊고 독자적으로 그들만의 길을 가야했다.

노동동맹회는 노동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노동자들의 능력 향상과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일반 노동자와 소작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하고자 노동야학회를 조직하고 노동자와 소작인들을 모집하여 노동야학을 개설하였다. 이 야학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산술과 국어 등 기초 지식을 비롯하여 보통 학과까지 망라하여 가르치는 까닭에 대단히 호응이 높았다.<sup>93)</sup>

또한 서울청년회는 9월 첫째 일요일의 국제무산청년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8월 31일 청년데이 기념선전문을 작성하여 서울 및 지방에 있는 청년단체에 300여 장을 배포하였다.<sup>94)</sup> 이 선전문을 전달 받은 영동노동동맹회는 서울청년회의 지령에 따라 9월 2일의 청년데이 행사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영동지역 청년들은 “원래 국제청년데이는 1915년 10월 5일 독일에서 국제무산자청년이 모인 후 제9회가 되었는데 아직 조선에서는 물론 전 동양에서도 이날을 기념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면서 “영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여 금년의 행사를 통하여 국제청년데이를 선전하고 널리 홍보하자”고 결의 하였다. 그리고 영동노동동맹회

92) 『동아일보』 1923년 11월 24일.

93) 『동아일보』 1923년 9월 9일.

94) 박철하, 「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 청년운동과 고려공산청년회」, 『역사와 현실』9호, 1993, 255쪽.

는 이날 종일토록 비가 흠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개시하여 낮에는 선전 배라를 배포하고 시위행렬을 하였다. 밤에는 기념강연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다.

장내가 만원인 상태에서 상무집행위원장인 김극수의 국제청년데이의 유래와 이유 등을 말한 후 장철이 ‘자본주의의 비밀’, 김두수가 ‘국제청년데이와 조선’, 강택진이 ‘남의 힘을 먹는 자는 죄인’, 권귀현이 ‘영장이냐 축생이냐’이란 주제로 열변을 토하였다. 특히 강택진의 사유재산 전부를 무산자에게 제공하고 사회운동에 헌신할 것을 주장한 강택진의 강연은 참석한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했다.<sup>95)</sup>

1920년대 전반기에는 국내사회주의 여러 그룹들이 조직되면서 주요한 분파들이 형성되고 분화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 화요파·서울파 등 주요 사회주의 분파와 더불어 식민지시대 민족해방운동에서 특히 노동·농민운동을 비롯한 반제민족통일전선에서 하나의 획을 그었던 북풍파 등이 형성되면서 각축전을 벌였다.

서울파는 1924년 이래 사회주의자동맹, 조선노동교육회, 경성노동청년회, 조선무산청년회, 조선여자청년회, 전진회, 경성학생연맹, 경기도청년연합회 등 자파 소속 단체를 조직하며 국내에서 대중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각종 기념일 및 강연회를 통하여 세계사회주의운동과 사회주의 선전 등을 하였다.<sup>96)</sup> 서울청년회는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방법으로 강연회를 택하여 각 지역의 청년단체를 찾아가며 ‘무산청년운동’에 대한 의의와 국제 청년운동사, 레닌주의를 선전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벌였다. 이렇게 서울청년회는 지역청년회를 장악하고자 하는 방침을 세우고 그 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였다.<sup>97)</sup>

이러한 서울청년회의 활동을 보면서 영동 혁신청년들은 서울청년회의 노선을 준수하고 그 방향으로 청년운동을 이끌어가려 했다. 왜냐하면 영동지역사회에서 확고한 사회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칠월회나 영동노동동맹회가 영동사회에서만 활동을 전개하기는 어려웠기 때문

95) 『조선일보』 1923년 9월 9일.

96) 한대회 편역, 『식민지시대 사회운동』, 한울림, 1986, 14쪽.

97) 박철하, 앞의 글, 『역사와 현실』9호, 1993, 257쪽.

이다.

이후 영동지역 청년들은 영동지역에만 국한한 활동이 아니라 서울청년회와 노선을 함께 하며 활동하는 단체로 변하려 하였다. 1924년 서울청년회는 전조선청년당대회 이후 회원자격을 무산청년에 한하고 좌익전선의 확대를 위하여 전조선 노농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서울에서의 활동을 단념하고 지방의 소작단체, 노동단체 등이 준비회에 가입 유도하기 위해 장일환을 전라, 충청도로, 강택진을 경상도로, 이시완을 함경도 등에 파견되었다.<sup>98)</sup> 가입유도를 받은 영동노농동맹회는 1월 16일 조선노농대회 준비회를 결성하고 준비회 선언 및 대회선언문을 작성할 때 노동대회 상무위원으로 사무를 분담하여 조선노동공제회 경성본부와 함께 서무부를 담당하며,<sup>99)</sup> 노농대회가 창립될 때에 장준은 상무집행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sup>100)</sup>

서울청년회는 곧이어 1924년 4월 17일 노동대회 세력과 남선노농동맹의 연합으로 조선노농총동맹을 창립하려 하였다. 서울청년회는 조선노농총동맹을 마르크스주의적 노동운동의 중요한 기구로 활용하고자 하였다.<sup>101)</sup> 이것을 적극 환영하며 영동노농동맹회에서는 영동노농동맹회 지부별로 대표자를 선발하여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발기인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영동노농동맹 : 김극수, 장준
- 매곡농우회 : 김행하, 장철<sup>102)</sup>

서울청년회는 1923년 말부터 1924년 4월까지 전조선적 단체연합창립대회의 예비작업에 전력을 기울였다. 서울청년회는 1924년 4월 21일 총 223개 단체의 대표와 6~7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청년총동맹 창립총

---

98)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89쪽.  
 99) 「朝鮮勞農大會 第1回 常務執行委員會ノ件」 경중경고비 제906호5, 1924년 2월 2일 ; 『조선일보』 1924년 1월 18일.  
 100) 「朝鮮勞農總同盟ノ件」 경중경고비 제4260호 5, 1924년 4월 15일.  
 101) 스칼라피노·이정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 돌베개, 1986, 117쪽.  
 102) 「朝鮮勞農總同盟發起ノ件」 경중경고비 제4409호 4, 1924년 4월 18일.

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서울청년회의 청년운동에 대한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청년총동맹은 당시 농민운동, 노동운동, 사상운동, 여성운동, 청년운동 등 각 부문 운동에서 전위를 자임하였다. 따라서 모든 부문운동단체를 청년총동맹의 산하에 두고자했다.

청년총동맹창립위원회는 지방순회 조선청년총동맹의 발기 선전과 지방단체의 동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4월 초 청년총동맹창립위원회의 각도 지방순회반을 조직하여 파견되었다.<sup>103)</sup> 이때 이 청년총동맹에도 영동의 청년연맹은 청중에 가입하여 청중의 활동에 동참하고자 했다.<sup>104)</sup> 청중의 창립은 충북지역 사회운동자들에게도 큰 관심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대회에 충북지역에서는 영동청년회와 영동친목회, 진천신지청년회, 충주청년회, 칠월회 등이 참여했다. 여기에서 영동청년회 소속이었던 김두수는 청년총동맹에 서울청년회계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 <중앙집행위원>

서울청년회계 : 함인호(강원변성청년회), 이운혁(함북경성청년회), 최창익(함북성청년회), 김교영(함남북청청년회), 임봉순(경기양주회천청년회), 이영(서울청년회), 이길용(인천제물포청년회), 정백(서울청년회), 최창순(전남보성청년회), 박원희(경성광진청년회), 연재준(남청노동청년회), 최창섭(경남진주형평청년회), 안준(경남창원남면청년회), 김수(전남광주청년회), 조기승(전북김제무산청년회), 김두수(충북영동청년회)

신흥청년동맹계 : 조봉암, 김찬(경성신흥청년회), 김단야(경북대구청년회), 인동철(경남진해신흥청년회), 신태옥(부령신요청년회)

기타 : 함중유(평양오월청년회), 송봉우(재일무산청년회), 변희용(재일본 동경유학생후학우회)

중앙검사위원 : 한신교, 박현영, 최순탁, 강제모, 주종건<sup>105)</sup>

103)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141쪽.

104) 장승순, 「1920년대 충북지역 청년회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중원문화연구』제23집, 2015, 122쪽.

105) 안건호·박혜란, 「1920년대 중후반 청년운동과 조선청년총동맹」, 『한국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1995, 88~90쪽 ;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아

이후 청년총동맹은 청년계급에게 관심을 가지며 무산계급 의식을 주입한 민중적 정신을 고취시켜 사상적으로 각성한 청년을 규합하여 조직 훈련 하에 사상적 선전운동을 일으킬 것과 노동자와 농민에게 불합리한 것을 철폐하고 새로운 사회를 가져올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그러면서 한해가 흐른 후 1925년에 들어와 4월 17일에는 서울 시내 중국음식점 아서원에서 화요회가 중심이 되어 비밀리에 모여 김재봉을 책임비서로 하고 조선공산당 결성식이 비밀리에 거행되었고, 그 다음날 4월 18일 서울 종로구 박헌영의 집에서 박헌영을 포함한 18명이 모여 고려공산청년회를 결성하였다.<sup>106)</sup>

국내 공산당주도권 경쟁에서 밀린 서울청년회는 코민테른의 승인을 받고 국내 사회운동단체를 장악하고자 서울청년회는 고려공산청년회를 결성하고 곧바로 1925년 4월 전국의 사회운동자들을 모아 전국적 사상단체로 조선사회운동자동맹을 조직하려 하였다. 서울청년회가 밝힌 「동맹발기 취지문」이다.

조선의 사회운동은 벌써 기분의 시대를 지나서 조직적시대로 들어가려한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사상의 순화를 촉진하여 조직의 건설을 도모하여 운동의 행진을 지도하는 직분을 유한 기관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이에서 오인은 전국적 사상단체인 조선사회운동자동맹의 조직을 창도한다. 전국의 사회운동자는 모두 와서 이 역사적 사업에 참가노력하기 바란다.

조직적 행동을 시인하는 사회운동자로서 의지가 강고하고 운동에 있는 결의와 신념이 확실한 자로 발기단체로 발기인을 공모하여 발기인 규정을 세웠다. 그러자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적 운동자들이 창립대

---

세아문제연구소, 1973, 143쪽.

106)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285~327쪽. 이렇게 고려공산청년회가 조직된 이유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가 공산당이 공산청년동맹을 원조했던 종래의 사례에 비추어 조직문제에 있어 '공산당의 지방단체가 존재하는 곳에는 모두 공산청년동맹을 조직'하며, '청년당원을 공산청년 동맹에 들어가 활동'할 것을 결의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회에 참석하였다.<sup>107)</sup>

표 5. 충북지역 조선사회운동자동맹 참가자 명단

지역	소속	참가자
영동	칠월회	장준, 김두수
충주	충주청년회	김영식, 이선규
괴산	괴산청년회	김용웅, 김태규
청주	청주청년회	박달현, 서정기
음성	음성청년회	장기영

자료: 「朝鮮社會運動者同盟發起準備委員會ノ動靜ニ關スル件」 경종경고비 제4625호, 1925년 4월 23일.

이들은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던 그 지역청년회원들로 모두 서울청년회 노선을 따르는 그 지역 혁신청년들이었다.

그 후 충북의 사회운동자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충청 남·북지역을 아우르는 사상단체를 조직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충남지역의 서울청년회 계열의 사회운동자들과 뜻을 합쳐 제1선동맹이라는 사상단체를 결성하였다.<sup>108)</sup> 제1선동맹의 본부는 충남 대전에 두었고, 제1선동맹이 앞으로 실행할 활동방향을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1. 아등은 무산계급운동의 원리원칙을 연구함
2. 아등은 무산계급운동의 실제적 이익을 위하여 노력함

즉 제1선동맹은 무산계급운동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무산계급운동의 원리원칙과 그 행동을 전개하려는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전위 단체임을 표방했던 것이다. 그리고 일선동맹의 책임비서는 영동청년회 소속의 김두수가 선정되었다.

1925년 7월에는 일선동맹은 그 단체의 활동 범위를 더 확대하여 위하

107) 「朝鮮社會運動者發起準備委員會ノ動靜ニ關スル件」 경종경고비 제4625호, 1925년 4월 23일.

108) 허중, 「1920년대 충남지역의 청년운동」, 『역사와 담론』55, 2010, 152쪽.

여 다른 6개 지역사회운동자 연합에도 참여하였다. 6개 지역 사회운동자 연합은 전남 각 지역에서 유력한 인물로써 조직된 전남 해방운동자동맹과 전북의 민중운동자동맹 그리고 충청 제1선동맹과 황해 민중운동자동맹 그리고 경북 사회운동자 동맹 과 강원 봉화회가 합쳐서 만들고자 한 연합체였다. 이 6단체의 연합기관을 통하여 6개 지역의 모든 지역의 운동의 형세와 보조를 일치하게 하고 동시에 6단체가 각각 경영하는 잡지까지도 연합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음으로 각 사회단체 대표자회의를 열기로 계획하고 이번에 전북 민중운동자동맹과 충청 제1선동맹의 주최로 지난 15일부터 대전조선일보지국에서 6개 단체 대표회를 열었다. 삼엄한 경관의 경계로 회원과 각 신문기자 외에는 방청조차 금지되었지만, 그곳에서 아래의 사항을 결의하였다.

1. 6개동맹의 연합으로 경성에서 잡지 『조선운동』을 간행하되 각 단체에서 위임 2인 이상을 선택하여 1인을 반드시 경성에 주재케 할 일
2. 위 잡지 창립일은 1월 1일로 하고 자금은 1만원의 범위에서 6동맹이 합력 모집 할 일
3. 함남에 있는 사회운동자동맹에서 통하여 상호연락을 교섭할 일
4. 기타 중요사한 3건<sup>109)</sup>

이 결의 사항대로만 본다면 6연합동맹은 6개 지역의 사회운동의 통합을 꾀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6지역 사회운동단체의 연합은 경찰의 지속적인 방해와 현실적인 어려움이 함께 작용하여 실현될 수 없었다.

조선청년총동맹에도 가입한 혁신청년들은 영동지역사회 운동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청년총동맹의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영동청년회를 장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칠월회의 회원들은 다시 영동청년회에 가입하였다.

그들은 청년회의 회칙을 대폭 개정하며 특히 청년회의 회원의 연령을 제한하고 명목상의 회원인 유지들을 정리하는 혁신을 단행하였다. 그 결

---

109) 『시대일보』 1925년 7월 19일.

과 유산자계급들이 청년회원으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영동청년회를 떠나게 되면서 영동청년회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sup>110)</sup>

영동청년회를 장악하고 나서 야학의 실시 등으로 지방조직의 관리하기 위해 영동지역을 근거로 외부지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생연합회를 조직하였다. 영동청년회에서는 유학생들을 영동청년회에 불러 모아 경성과 일본 등지의 4곳에 영동청년회 지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 중앙집행위원회도 선출하였다. 이때 지부와 선출된 집행위원은 아래와 같다.

경성지부 : 배( )성,  
 일본지부 : 이규재  
 대구지부 : 송재오,  
 청주지부 : 박? 하<sup>111)</sup>

이러한 면은 영동지역사회 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의 한계성 때문에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런 면으로 보면 당시 영동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사회운동처럼 침체를 면치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영동의 일 기자는 당시 상황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영동지역의 사회운동은 어떠하냐? 영동의 사회운동이라고 하면 청년운동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보잘 것이 없다. 노동운동을 말하면 한참 동안은 격렬했지만 반동세력의 압력으로 인하여 당분간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sup>112)</sup>

즉 1925년 당시 영동지역의 청년단체는 지역 내에서 활동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자들의 비협조와 탄압 등으로 그 명맥만 유지할 정도였다. 그래서 1926년에 들어서자 영동지역사회운동이 침체되었다고 느낀 칠월회는 “전반적인 사회운동이 침체에 빠져있다”고 인식하고 모든

110) 「장준 외 10인 판결문」 형공 제269호, 1934.

111) 『시대일보』 1925년 8월 22일.

112) 『시대일보』 1926년 1월 8일.

사회운동들이 기본운동으로부터 점점 조직화하는 급일 사회운동에 있어서 무엇보다 사상을 순화해야겠다는 필요를 느끼고 영동청년회관에서 부흥방안을 모색하였다.<sup>113)</sup> 그 결과 칠월회는 새로운 부흥 방안을 담은 행동 강령을 채택하였다.

1. 우리들은 사회운동의 선구자가 되기를 기함
2. 우리들은 대중의 합리적 사회생활이 획득을 기함
3. 우리들은 해방운동상에 있어 국제적 이익을 위하여 노력함

이 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영동지역의 청년이 사회운동의 선구자로서 대중의 사회생활과 계급의 해방운동을 위해 일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면 이 강령은 서울청년회의 강령과 차이가 없는 내용이었다. 즉 칠월회는 서울청년회의 노선을 그대로 실행하고자 했던 것이다. 칠월회는 회의 내부조직도 개선하여 중앙조직을 기존의 회장제를 바탕으로 한 조직운영이 아니라 위원제를 채택하고 위원을 선출하였다.

상임위원 : 장준, 김극수, 장철, 홍순용, 김태수, 전원, 최관홍 <sup>114)</sup>

이 상임위원들은 영동청년회 및 황간청년회나 양강청년회 등의 회장이거나 청년회의 대표적인 활동가들이었다.

서울청년회가 결성한 고려공산청년회는 청년총동맹을 장악하고 나서 청년총동맹을 보다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것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방침을 세웠다. 그것은 전국의 청년단체를 1면 1회-군·부 연맹-도 연맹-총연맹의 형태로 묶기로 했다. 즉 도시의 경우에는 일정한 구역별로 조직하는 동시에 노동청년은 직업별로 조직하며, 농촌의 경우에는 1면 1회의 표준에 의해 조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의 군·부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군부지역내 지역별 직업별 청년단체를 망라하여 군부청년연맹을 만들고 이를 단위로 하여 도 연맹을 조직하며, 도 연맹을 기초로 전조선 청년총동맹을 결성하는 것이었다.<sup>115)</sup> 고려공산청년회의 이러한 의도는 즉

113) 『시대일보』 1926년 5월 20일.

114) 『시대일보』 1926년 5월 20일.

각적으로 산하 지방 청년단체에 지령으로 내려졌다.<sup>116)</sup>

지령을 접한 영동청년회는 그 지시에 따라 영동지역의 청년운동단체를 통합하여 단일화하는 계획을 세웠다. 영동지역의 혁신청년들이 분주하게 노력한 결과 1926년 10월에는 영동청년회·황간청년회<sup>117)</sup>·양강청년회<sup>118)</sup>·용화청년회<sup>119)</sup> 및 영동노동조합<sup>120)</sup>의 5단체를 합체 통일하여 영동청년총연맹을 조직하였다.<sup>121)</sup> 영동청년연맹이 영동지역사회에 추진한 사업은 각 지역 청년회가 주관하여 지역의 노동야학을 개설하였다.

영동청년회나 노동청년회 양강청년회, 황간청년회 등 혁신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던 청년회에서는 청년회원들이 직접 야학을 설립하고 직접 지도 하였던 것이다. 그 야학은 농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야학이나 여자야학까지 다양한 야학운동을 실시하였다.

충북 영동군에서는 몇 해 전부터 일자무식 농민들에게 문맹퇴치는 물론 인성을 도야하기 위하여 노동야학과 여자야학을 설립하고 국문, 산술, 일어, 보통상식 교재로 하여 열심히 교수하였다.<sup>122)</sup> 노동야학은 영동지역에서는 청년단체가 조직된 곳에서는 지역 청년들이 청년회나 종교단체나

115) 선우기성, 앞의 책, 금문사, 1973, 483쪽 ; 박철하, 앞의 글,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1995, 149~150쪽.

116)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巖南堂書店, 1933. 30~31쪽.

117) 황간청년회는 1925년 3월 14일 문화적 신사회 건설을 표방하며 창설되었으며 야학 강연회 등의 활동을 했다. 임원은 최판홍, 장하진, 추교경 등이었다(『시대일보』 1926년 1월 12일 ; 조선총독부경무국, 앞의 책, 1930, 167쪽).

118) 양강청년회의 창립일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준, 장철 등이 양강면 출신인 점을 보면 영동청년동맹 창립직전 그들의 영향력 하에 창립된 것으로 짐작된다.

119) 용화청년회는 창립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923년 말경에 창립된 것으로 추측된다. 야학을 경영하기 위해 농악대를 구성하여 기금을 모집하기도 했다(『시대일보』 1924년 1월 9일).

120) 영동노동조합은 1926년 5월 노동청년들이 계급적 단결을 목표로 창립하였다(『시대일보』 1926년 5월 26일).

121) 지중세, 앞의 책, 돌베개, 1984, 81쪽 ; 「장준 외 6인 판결문」 형공 제 125호, 1928년 6월 20일.

122) 『중외일보』 1926년 12월 26일.

개인적 차원에서 노동야학을 실시하였다.

표 6. 충북 영동군 노동야학 상황(1926)

야학	단체	인원	운영자
계산여자야학	영동청년회	10	김태수, 김두수, 이관식
영동노동야학	영동노동청년회	30	상동
묘동야학	노순명	50	노순명
묘동노동야학	양강청년회	50	장준, 장철
양형노동야학	양강구세군	35	상동
노동야학	순화청년회	35	
황동노동야학	황간청년회	36	최관홍, 추교경, 장하진
?노동야학	소열	10	
가무노동야학	가동리	40	

자료: 『중외일보』 1926년 12월 26일 ; 「장준 외 6인 판결문」 형공 제125호, 1928.

서울청년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조선사회 각 부문 운동을 통일하여 전운동의 이론과 정책의 저장고가 될 만한 최고 기관으로서 조선사회단체협의회를 만들기로 결의하고 강령과 조직 규정을 발표하였다.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는 창립준비위원회가 조직 활동에 노력하며 6월에 이르러 가입원을 받아 칠월회가 여기에 가입하였다.<sup>123)</sup>

화요파 조선공산당은 1926년 6·10만세 투쟁으로 또 한 차례의 검거를 받고 크게 파괴되었다. 그러자 화요파들은 와해하다시피 한 조선공산당의 재조직을 목적으로 정우회에 가입하고 조선 내 사회운동의 분립에 대해 절대 중립을 고수하고 그 입장으로 적극적으로 전선의 통일을 촉진했다. 그리하여 일월회가 중심이 되어 레닌주의동맹 혁명사, 만주공청, 서울신파 세력과 결합하여 ML파를 형성하였다.

조선공산당 책임비서인 김철수는 11월 28일 중앙위원회를 열면서 1926년 12월 6일 당대회를 소집하기로 하며 출석할 대의원을 정했다. 그리고 1926년 12월 6일 조선공산당 2차 당대회를 개최할 때, 김철수는 “파괴된

123) 『동아일보』 1926년 4월 22일.

조직 및 질서를 근본적으로 정돈하여 확립하기 위하여 11월 16일 고려공산동맹을 가입시켜 당세의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본회의의 대의원수가 너무 소수이지만 이 대의원들은 각 지방의 주요한 당원인 것과 더욱이 지금까지 분립되어 있던 운동이 통일되어 회집된 것으로 보아 조선혁명운동사상 가장 위대한 뭉친 모임”이라고 말하며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 대회는 대의원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3인을 추천하여 정학선, 하필원, 강석봉을 선출하였다. 심사위원은 다음의 13인을 대의원으로 선출하였다.

심사의원 : 정학선, 하필원, 강석봉

대의원 : 노백용(경남), 강석봉(전남), 정학선(경북), 임혁근(전북), 장준(충남북), 하필원(경기), 안창수(평남), 박은혁(평북), 김영섭(함북), 서재국(함북, 강원), 박낙중, 고공청(동경), 김강(대표)<sup>124)</sup>

이렇게 제2차 공산당대회에서도 칠월회의 장준은 충남·북지역을 총괄하는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27년에 들어서면서도 영동지역의 혁신청년들의 활동은 대외적인 부분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영동청년연맹원들은 3월 13일 충청남도 대전 소재 제1선동맹이 주최하는 사회운동자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 사회운동자간담회는 충남북 각지에서 활동하는 주의자 34명이 모여 운동 상황을 보고하고 토의하는 자리였다. 간담회가 진행될 때, 간담회의 제안자인 서울청년회 집행위원 차재정이 경제적 투쟁을 정치적 투쟁으로의 필요성을 서술한 「불관서혁명의 억압정치에 대한 대중의 반발과 조선민족의 확고한 대중단결을 말함」으로 혁명사상을 고취시켰다.

토의시간에는 조선 무산계급운동의 방향 전환 문제에 관하여 토론할 때, 장준은 앞으로 나와서 「조선 무산자 계급 운동 방향 전환에 관한 건」을 발표하며 조선의 사회운동은 무산자 계급으로의 운동 방향 전환과 이 운동에 무산대중의 나설 때임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러한 간담회를 지켜

124) 전명혁, 앞의 책, 선인, 2007, 318쪽.

보면서 불온한 것으로 인식하여 집회를 강제 해산시켰다.<sup>125)</sup>

1927년 5월, 서울청년회가 주체가 되어 서울에서 조선사상단체중앙협의회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영동청년동맹은 영동지역 각 청년회 소속으로 이 대회에 대거 참석하였다.<sup>126)</sup> 그 참석자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 황간청년회 : 최진
- 칠월회 : 장준
- 영동노동청년회 : 김태수
- 용화청년회 : 이복재
- 양강청년회 : 장철
- 평문구락부 : 오종순
- 용북청년회 : 이광수
- 제1선동맹 : 김두수

즉 이들은 영동청년동맹을 이룬 혁신청년의 핵심으로 칠월회가 통제할 수 있는 영동지역의 사상단체 및 그 간부들이었던 것이다.

제1·2차 공산당 사건은 결성에 있어 서울파를 제외한 북풍, 화요 양파가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기 때문에 대다수 간부들에 대한 검거는 큰 타격이었으며, 검거되지 않은 자들은 몸을 숨기고 재기를 노리고 있었다. 마침 2차 사건에 관련되어 도피 중이던 김철수, 고광수 등이 1926년 겨울 경성에서 조선공산당 및 고려공산청년회의 재조직을 위해 비밀리에 활동을 벌이던 중, 이들과 제휴하게 되어, 공산당 각파 규합, 종래의 파벌투쟁을 청산한 통일당 조직에 착수하여 제3국제당의 승인을 얻어 전후 2회의 검거로 완전히 괴멸된 고려공산청년회를 부활시켰다. 이렇게 성립된 제3차 공산당은 각파의 형식적 연합체였기 때문에 서로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암투가 속출하였다. 이렇게 3차 공산당이 성립되자 장준은 서울청년회

---

125) 朝鮮總督府警務局, 앞의 책, 不二出版, 1927, 25~26쪽 ; 朝鮮總督府警務局, 앞의 책, 1931, 218쪽.

126) 「朝鮮社會團體中央協議會創立大會開催狀況並集會禁止ニ關スル件」 경중경고비 제2552호, 1927년 5월 30일 ; 「朝鮮社會團體中央協議會創立大會ニ關スル件」 경중경고비 제550-1호, 1927년 5월 17일 ; 『동아일보』 1929년 3월 2일.

소속으로 조선공산당 충청북도 당 책임 비서로 김두수는 고려공산청년회의 책임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1927년 5월에서 6월 사이 제3차 조선공산당의 충청북도 당책임 비서 장준, 공청 책임비서로 김두수가 선정되어 당과 공청 합동의 영동 야체이카를 조직하여 최관홍, 이성춘을 야체이카원으로 하여 영동청년연맹, 영동청년동맹의 표현 단체를 지도, 훈련하고 학원의 생도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기에 노력하였다.<sup>127)</sup>

영동지역에서 영동청년동맹을 야체이카로 이용하여 영동청년동맹원을 야체이카의 일원으로 지도 훈련하고 영동지역의 청년들에게도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한편 영동지역 혁신청년들은 노농총동맹이 분화하여 조선농민총동맹이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할 때 농민총동맹에 가입하여 농민총동맹의 노선을 실천하려 하였다.

조선농민총동맹은 원래 1924년 4월 전국에 걸쳐 노동자 농민운동의 통일적 역량을 결집시키려는 조선노농총동맹이 결성되고 난 후 소작쟁의나 노동쟁의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했으나 1925년 11월 이후 조선노농총동맹을 농동단체와 농민단체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면서 1927년 9월 6일 조선노농총동맹이 농민동맹과 노동동맹으로 분리함으로써 결성된 전국적 규모의 농민단체였다. 이후 조선농민총동맹은 200여 개의 가맹단체를 거느린 농민운동의 전국적 지도 조직으로 활동하였다.<sup>128)</sup> 이때 영동청년동맹에서는 장준이 대표로 창립대회에 참석하고 조선농민총동맹의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sup>129)</sup>

중앙집행위원장 : 인동철

중앙집행위원 : 경기홍(경기), 장준(충북), 정학원(충남), 송영섭

127) 梶村秀樹·姜德相 編, 『現代史資料』29(東京), みすず書房, 1972, 101쪽.

128) 지수걸, 앞의 책, 역사비평사, 1993, 91~92쪽.

129) 전명혁, 앞의 책, 선인, 2006, 245~249쪽.

(전주), 김복수(화호), 서태석(무안), 신준희(완도), 조정서(화순), 김익두(순천), 김철환(영광), 김용기(광주), 한길상(광주), 안상길(풍산), 강갑수(금화), 안준(밀양), 천두상(고성), 주병화(진해), 인동철(김해), 김병환(강원), 이경석(황해)

동 후보 : 정병용(전남), 이주윤(황해), 박창호(?)

중앙집사위원 : 박복영(전남), 배종철(경남), 유동준(하동), 함연고(강원), 유용목(경북)

동 후보 : 박공근(전남), 김영우(함남)<sup>130)</sup>

조선청년총동맹은 1927년 민족협동전선의 단일형태로서 신간회가 창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시대적 요청에 적응하고자 조선청년총동맹의 조직체제와 강령 및 운동방식을 새롭게 하였다. 즉 조직 체제에 있어서는 전국적 단일 중앙집권적 조직을 완성한다는 방침에 의하여 조직체를 부군단일의 청년동맹으로 개조하는 동시에 각 면에 지부, 각 리에 반을 설치하며 다시 운동상의 협의기관으로서 각 도에 도 연맹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조선청년총동맹은 청년운동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자, 그동안 청년단체들이 진행해오던 운동방향을 민족운동에서 사회주의 운동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청년총동맹은 1927년 4월 8일, 이영, 조기승, 김극수, 강훈 등을 새롭게 집행위원으로 선출하였다. 그들은 조선청년총동맹의 '신운동방침'을 수립하고 서면대회를 통해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중앙집행위원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중앙집행위원장 : 박형병

중앙상무서기 : 송언필, 권태동

중앙집행위원 : 조기승, 강정희, 이광, 이명욱, 차재정, 도정호, 김두수, 임호재(충남북), 이평권, 임영택(전북), 김재명, 강석봉, 한상호(전남), 장적우, 김석천, 황태성, 이지호(경북), 김연호, 최원조, 김계영, 김광(경남), 한명찬, 정의식(강원), 김찬순, 백남표, 어

130) 『동아일보』 1927년 9월 9일 ;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109쪽.

해(황해), 강기보, 정혁(평북), 김태희, 박은혁(평남), 도관호, 강영균, 이계희, 조두희(함남), 맹두은, 김태균(함북), 정희영, 김병일(일본), 김진택, 이주화, 김기철(만주)

중앙검사위원 : 임형일, 하진향, 유두희, 전백, 좌공립

중앙집행위원후보 : 박천, 이영근, 박문병, 주윤홍, 백용승, 김필선, 안몽룡, 이재하, 김찬성, 홍보용, 주재학, 전영률, 백준열, 심은숙, 염영화<sup>131)</sup>

이때 조선청년총동맹이 요구하는 변화 방향은 “지금까지의 조선의 청년운동은 전민족적 전선에서 무산자운동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조선의 청년운동은 그 자체가 전민족적 협동전선에서의 선두대로서 등장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전체운동의 일부분인 청년운동의 당면 임무를 규정지으려 한다고 하며 순수무산계급 청년만을 본위로 했던 과거 청년운동을 비판하고 민족주의 청년운동을 비롯한 각 계급계층의 청년 대중에게 청년총동맹의 문호를 개방하여 투쟁 범위를 부분적으로부터 전선적으로 확대하였다. 조선청년총동맹은 새로운 방향을 찾아 종래의 운동을 극력 전환하려 하였다. 당시청년총동맹이 발표한 새로운 행동 강령이다.

1. 전조선 청년대중의 정치적·경제적·민족적 이익의 획득을 기함
2. 전조선 청년대중의 의식적 교양과 훈련의 철저를 기함
3. 전조선 청년대중의 공고한 조직의 완성을 기함
4. 이상의 강령에 기인하여 좌의 정책을 수립함<sup>132)</sup>

청년총동맹은 이러한 새로운 강령을 통해서 사회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청년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그러한 청년운동이 조선해방운동의 중심 세력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1926년 영동청년연맹이 결성되고 난 후 영동지역 경찰은 영동지역 혁

---

131) 안건호·박혜란, 앞의 책,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1995, 109~110쪽.

132)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143~145쪽.

신청년들의 활동에 의혹을 품고 그들을 지켜보다가 혁신청년들이 공산주의사상을 주입하는 활동으로 받아들이고 대거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경찰은 우선 칠월회의 간부였던 장준을 검거하고 이어서 영동경찰서에서 고등계 2인이 돌연히 영동청년회와 7월회 그리고 노농총동맹, 문평구락부, 소년동맹을 일제히 수색한 후 약간 서류를 압수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영동청년회 간부 김태수도 검거하기도 하였다.<sup>133)</sup> 그러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찰은 그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혁신청년들을 관찰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던 경찰은 1927년 6월에 이르러 혁신청년들을 영동청년연맹이 국가보안법 위반했다고 하며 대대적으로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영동지역의 청년단체의 활동은 일제의 감시망에 촉각을 영동청년연맹은 11월 러시아 혁명기념일을 맞아하여 시위 행렬을 하고 선전빠라를 배포하면서 기념행사를 준비하였으나 경찰의 철저한 통제로 행사를 하지는 못했다. 이때 빠라에는 “우리들도 혁명의 날이 왔음을 확신하고 최후까지 돌격 진격하자”라고 적었다. 그 외에 세포단체에 각종 불온행동을 지시하는 문서도 다수 발견하여 관계자 20여명을 검거했다.<sup>134)</sup>

경찰은 지속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여겼던 영동청년회원 12명을 공산주의를 선전하였다는 이유로 검거하여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으로 충북경찰부와 영동경찰서 넘겨 엄중한 취조하였다.<sup>135)</sup>

그들 중에서 5명은 바로 풀려나고 나머지 7명은 치안유지법 제1조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영동경찰서에 검거되어 공주지방법원 대전지검검사국으로 호송되어 4개월을 두고 심리를 하여 오던 중 지난 17일에 종결되어 26일에 공주지방법원으로 송치되었다.<sup>136)</sup>

133) 『시대일보』 1926년 6월 13일.

134) 朝鮮總督府警務局, 앞의 책, 1931, 233쪽 ; 1927년 당시 일제가 파악한 충북지역에 존재하는 청년단체들에 대한 일제의 사상적 성향은 총 38곳의 단체 중에서 사회주의적 성향의 단체가 11곳, 사회주의적 색채가 있다고 여겨지는 단체가 27곳으로 모두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朝鮮總督府警務局, 앞의 책, 不二出版, 1927, 48쪽).

135) 『동아일보』 1927년 9월 3일.

136) 『동아일보』 1927년 12월 25일.

일제는 영동청년회의 주축세력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대대적인 검거 작업을 통하여 대부분의 사회운동가들을 일망타진 하였다. 장준을 비롯한 영동지역 청년 운동가들은 일제히 투옥을 당한다. 법원이 밝힌 구속의 이유는 판결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장준·장철은 황간청년회 회원 및 영동청년회 특별회원, 피고인 김태수·김극수·이관직은 영동청년회 회원, 피고인 최판홍·추교경은 황간청년회 회원 및 영동청년회 특별회원이며 모두 그 회를 좌우하며 현세에 자본주의사회를 변혁하여 공산주의사회의 실현을 그의 이상으로 삼고 우선 그의 본보기로 무산계급의 단결로 전력을 동 계급에게 장악하게 하여 경제상 자본가의 재산에 사유를 부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항시 그 수행을 기도하고 정치에 관해 불온한 언동을 하여 오던 바, 1926년 충청북도 영동군내에는 영동, 양강, 용화, 황간, 영동노동 등 각 청년회가 있어 동 회원 수가 각각 10여 명 내지 70여 명에 이르렀으나 이들 청년회가 각기 독립되어 있어 그간 연락이 밀집하지 못할 때는 그 세력이 미미하여 그 목적을 달성키 곤란하므로 피고인 등은 그들의 청년회를 통합하여 강력한 단체로 조직할 것을 모의하고 동년 10월 18일 영동군 영동면 계산리에 있는 영동청년회관내에 전시한 5개 청년회의 각 대표자 10여 명을 초치하여 피고인 장준·장철은 양강, 김극수·김태수·이관직은 영동, 최판홍·추교경은 황간에, 각 청년회의 대표자로서 출석하여 영동청년연맹 창립대회를 개최하여 그 강령과 규약을 의결하고 역원 선거를 하며 그 사무소를 영동청년회관 내에 두고 이로써 영동청년연맹이라 칭하는 결사를 조직하였다는데 있다.<sup>137)</sup>

라고 하면서 영동청년동맹을 구성한 영동지역 각 청년회를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비밀 결사조직으로 규정했다.

영동청년회 간부 장준 외 6명에 대한 치안유지위반법의 제3회 공판은 지난 6일 오전 11시부터 공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개정되었으나 공개금지 중에 증인심문을 마치고 橋本검사로부터 피고 7명에게 아래와 같

137) 「장준 외 6인 판결문」 형공 제125호, 1928년.

은 구형이 있었는데 김병도, 류정현, 임창수 등 세 변호사도 피고인에게 치안유지법을 적용한 것은 해당치 않으니 무죄로 함이 적당하다는 변론이 있었다고 하며 오후 5시경에 폐정되었고 아래와 같이 판결되었다.

징역 3년 : 장준

징역 2년 : 장철, 김극수, 김태수, 최관홍

징역 1년 : 이관직, 추교경<sup>138)</sup>

이렇게 영동지역의 사회운동을 주도하던 장준은 최고 3년형을 받고 장철, 김극수 등은 2년형 추교경 등은 1년까지 징역형을 받고 투옥되었다. 이렇게 영동청년연맹은 일제의 탄압에 의한 주요간부의 구속되었다.

표 7. 영동청년연맹 관련 피검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중요 경력
장준	34	농업	양강면	청년회장, 칠월회 집행위원, 노농총동맹상무위원
장철	34	농업	양강면	양강청년회장, 안곡농우회장, 칠월회집행위원
김극수	30	신문기자	영동면	영동노농동맹대표, 칠월회집행위원, 영동청년동맹진형위원, 조선노농대회준비위원,
김태수	23	신문기자	영동면	영동노농동맹회장, 영동청년회 간부, 칠월회원, 『동아일보』 기자,
최관홍	28	농업	황간면	황간청년회장, 칠월회집행위원
이관직	26	교원	영동면	
추교경	28	농업	영동면	황간청년회 임원

자료: 「장준 외 6인 판결문」 형공 제125호, 1928년 ; 『장준 외 10인 판결문』 형공 제269호, 1934 ; 강만길·성대경,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 『시대일보』 1926 5월 20일.

138) 『동아일보』 1928년 3월 9일.

영동청년동맹사건으로 피검된 이들 중에서 장준, 김극수, 김태수 같은 경우에는 영동청년회를 결성하며 활동하다가 탈퇴하여 칠월회를 조직하고 영동청년동맹까지 설립했던 혁신청년들이었고, 추교경, 최관홍, 이관직 같은 경우에는 영동지역 내에서 지역 청년회나 농민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영동노동동맹이 설립될 때부터 함께 하면서 영동청년동맹의 설립에 동참했던 혁신청년이었다.

이러한 영동지역의 청년운동을 이끌어가던 혁신청년들이 구속된 이후에는 영동지역의 청년운동은 급격히 침체를 맞게 되었다. 영동지역 청년운동은 그 기반이 무너지면서 몰락해버릴 수밖에 없었다.

## VI. 맺음말

이상으로 1920년대 전반기인 1920년부터 1927년까지 영동지역에서 전개된 청년운동의 주체와 그들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20년대 이전의 민족운동으로 전개된 의병운동이나 3·1운동 등을 주도한 세력과 1920년대 이후 영동의 청년회를 비롯한 사회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관련된 것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민족주의적 1920년대 이전의 운동은 사회주의적 성격의 운동과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3·1운동은 민중들이 대거 참여한 운동이라서 1920년대 이후에 전개되는 사회운동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자각을 주는데 충분한 동기가 되었다.

둘째, 전국적 청년단체의 설립 추세에 발맞추어 영동지역에서도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동지역 유지·지주 그리고 혁신청년들이 중심되어 영동청년회를 조직한다. 때문에 영동청년회는 다른 청년회와 별 차이 없는 시대적 조류를 따르는 신문화건설, 문화향상, 지·덕·체 삼육의 발달, 교육의 보급, 산업의 발달 등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계몽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셋째, 그러나 영동청년회는 1923년 진조선청년모임에 참석한 이후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적인 청년들은 문화적이고 계몽적인

성격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였다. 주도권 경쟁에서 밀린 청년들은 그들 방식으로 영동지역사회의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영동청년회를 탈퇴하고 사상단체로써 칠월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농민문제와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동 영동노동조합을 노농동맹회로 개칭하고 활동을 확대하여 대내외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넷째, 1924년을 전후하여 국내에서 서울과와 화요파가 노농총동맹과 청년총동맹 건설을 둘러싼 대립과 1925년 3~4월에 전개되었던 대중적 집회 개최를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이 있을 때 서울과와 노선을 함께 하면서 대외적으로 서울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조직하는 노동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선노농총동맹과 청년총동맹에 가입하여 김두수나 장준 등은 그곳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25년 그들은 중앙의 노선에 만족하지 않고 지방에서도 공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우선 충남북지역의 사회운동가들의 모임인 제1선동맹을 조직하는데 함께 참여하여 제1선동맹을 주도하였고, 더 나아가 6개 지방 주요 운동단체들의 연합회를 만들기 까지 하였다. 그러면서 대내적으로 영동지역사회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을 실천해 나갔다.

다섯째, 1926년에는 청년총동맹의 지령에 충실하기 위해서 영동지역 5개 청년단체를 통합하여 영동청년연맹을 창립하고 제2차공산당 조직에도 참여하였다.

그후 1927년에는 서울청년회계열의 제1선동맹에 참여하며 서울청년회가 주체하는 단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그 성과로 제3차 공산당이 결성될 때에는 장준과 김두수는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의 충청남북도 책임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섯째,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장준 등이 2차 공산당사건에 관여했던 사상을 바탕으로 영동청년연맹의 활동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핵심단체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투옥은 지금까지의 영동 사회운동의 기반을 한 번에 무너뜨렸다.

이후 영동지역의 청년운동은 침체를 맞이하는데 그 이유는 일제의 대량검거, 밀정의 조직에의 침투 등의 탄압도 유효한 역할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혁신적인

청년들의 활동이라서 그들의 노선이 농촌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영동지역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여 효과적으로 농민이나 노동자들까지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서울청년회의 노선을 너무 추종하는 나머지 대외적인 활동에 치우진 면이 많았다. 농민과 노동자들을 자기 세력화 하는데 실패하였다. 공산주의 이론에 도취한 젊은이들에 의해 추진된 소부르주아적운동으로 학생, 노동자, 농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산발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상단체들의 운동이었다. 배출되는 젊은 학생층만이 그들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었고, 당의 소부르주아적인 성격은 영속화되었다. 그 목소리는 농민들에게는 딴 세계의 목소리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논문접수 : 2017.11.20, 심사시작 : 2017.11.22, 심사완료 : 2017.11.30.]

주제어 : 혁신청년, 서울청년회, 고려공산청년회, 영동청년회, 칠월회, 영동노동동맹회, 영동청년총동맹
--

【參考文獻】

- 『황성신문』,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조선중앙일보』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 「장준 외 5인 판결문」, 형공 제125호, 1928.
- 「장준 외 10인 판결문」, 형공 제269호, 1934.
- 朝鮮總督府, 1932, 『朝鮮ノ小作慣行』下卷, 續篇.
- 梶村秀樹, 1972, 姜德相, 『現代史資料』29, 東京.
- 朝鮮總督府, 1931, 『朝鮮の小作慣行』.
- 天野行武, 1923, 『忠北産業誌』, 일동인쇄주식회사.
- 忠淸北道, 1932, 『道勢一斑』.
- 朝鮮總督府警務局, 1927, 『朝鮮の治安狀況』, 不二出版.
- 朝鮮總督府警務局, 1933, 『最近に於ける朝鮮治安狀況』, 巖南堂書店.
- 忠淸北道, 1928, 『忠淸北道要覽』, 行政學會印刷所.
- 朝鮮總督府高等法院 檢事局思想部, 1935, 『思想彙報』5호.
- 金正明, 1976, 『朝鮮獨立運動』1(民族主義運動篇), 原書房.
- 朝鮮憲兵隊司令部, 1929, 『朝鮮騷擾事件狀況』, 極東研究所出版會.
- 지중세 역, 1946, 『조선사상범검거실화집』, 신광출판사.
- 김준엽·김창순, 1973, 『한국공산주의운동사』3, 아세아문제연구소.
- 스칼라피노·이정식, 1986, 『한국공산주의운동사』1, 돌베개.
- 한대희 편역, 1986, 『식민지시대 사회운동』, 한울림.
- 강만길·성대경 엮음, 1996, 『한국 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 강동진, 1980,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 지수길, 1993,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 역사비평사.
- 이균영, 1993,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 박찬승, 1992, 『한국근대사상사 연구』, 역사비평사.
- 한국역사연구회 근현대청년운동사연구반, 1995,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 김동명, 2006,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 경인출판사.
- 윤해동, 2006, 『지배와 자치』, 역사비평사.

- 김동노, 2006, 『일제 식민지시기의 통치체제 형성』, 해안.
- 박철하, 2009, 『청년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동선희, 2011, 『식민권력과 조선인 지역유력자』, 선인.
- 김중혁, 2017, 『일제시기 한국철도망의 확산과 지역구조의 변동』, 선인.
- 이현주, 2003, 『한국 사회주의 세력의 형성: 1919~1923』, 일조각.
- 전명혁, 2006,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 운동연구』, 선인.
- 강호출, 1991, 「식민지시대 충북 영동지역 농민운동 연구」, 『사총』제39집.
- 이준식, 1984, 「일제하 단천지방의 농민운동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범, 1986, 「1920년대~30년대 진도지방의 농촌사정과 농민조합운동」, 『역사학보』109.
- 김진호, 2013, 「충북의 3·1운동」, 『역사와 담론』제68집.
- 김상기, 1996, 「한말 충청지방에서의 의병투쟁과 그 성격」, 『청계사학』13.
- 장승순, 2010, 「한말 충북지역 의병운동의 민중운동적 성격」, 『충북사학』24.
- 장승순, 2015, 「1920년대 충북지역 청년회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중원문화연구』제23집.
- 허중, 2010, 「1920년대 충남지역의 청년운동-공주·논산·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55집.
- 심상훈, 2012, 「일제강점기 문경지역의 민족운동과 성격-1920년대 사회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23호.
- 이기훈, 2004, 「1920년대 사회주의 이념의 전개와 청년 담론」, 『역사문제연구』, 통권 13호.
- 박철하, 1993, 「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 청년운동과 고려공산청년회」, 『역사와 현실』9.
- 박철하, 2004, 「1920년대 사회주의 사상단체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제40집.
- 조종섭·최이돈, 1998, 「일제하 대전지역의 청년운동」, 『교육연구』제6권.
- 조찬석, 1988, 「1920년대 충청도지방의 청년운동」, 『인천교대논문집』제22집.
- 안건호, 1995, 「1920년대 전반기 청년운동의 전개」,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